

기획연구 2007-11

충남 신도시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

김성길 · 한상욱

발 간 사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태안에는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추진 중이다. 충청남도는 도청을 홍성·예산으로 이전하면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고, 천안·아산권 배후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큰 기대와 더불어 기존 주변 소도시의 약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에 생활권이나 상권이 집중돼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불균형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여러 부문별 전략 방안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권내의 소도시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와 연구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연구심의위원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10월 31일

원 장 김 용 응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1) 연구의 범위	1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충남 신도시의 개발방향

1. 위계별 공간 검토	4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4
2)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5
2. 신도시 개발의 방향	6
3. 충남 신도시들의 특성	6
1) 충남 지역구조의 성격	6
2) 충남지역의 신도시	8

제3장 신도시의 영향권 분석

1. 충남 공간계획속의 권역	11
2. 접근성에 따른 영향권	12
1) 영향권(안) 도출과정	12
2) 통근권 검토	13
3) 충남 각 신도시의 영향권	16
3. 영향권내 주변지역의 현황	19

1) 인가지표 현황	19
2) 경제지표 현황	21
3) 근린시설지표 현황	23
4) 중심시가지	26
4. 현황종합 및 여건 분석	30
1) 시·군의 내부환경	30
2) 시·군의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도출	33

제4장 외국(독일)사례 분석

1. 독일 도시간 네트워크의 사례와 기준	41
2. 'Quadriga' 도시네트워크 트리어-룩셈부르크 지역	43
1) 적용전략으로서의 도시네트워크	43
2) 도시네트워크 'Quadriga'의 조직구성	45
3) 프로젝트 분야	48
4) 도시네트워크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56
3. 프리니츠 (Prignitz) 지방중소도시의 네트워크	57
1) 협의체	57
2) 설립과 추진위원회	57
3) 활동과 프로젝트들	59
4) 작용과 결과들	60
4. 도시네트워크 익스포지역	60
5. 시사점	61

제5장 주변도시 활성화 방안

1. 주변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63
1) 충남도 도시들의 특성	63
2) 거점네트워크	65
2. 산업적(경제적) 방안	67
1) 지역혁신체계	67

2)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방안	67
3) 중심시가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71
3. 관광개발방안	74
4. 연계교통망 확충방안	79
5. 제도적 방안	81
1) 행정적 체계	81
2) 재정지원적 체계	86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요약 및 결론	90
2. 정책제안	91

참고문헌	93
------------	----

표 목 차

<표 2-1> 4대 개발권	5
<표 2-2> 6대 정주생활권	7
<표 3-1> 통근패턴으로 본 시·군간 연계 (2005년)	15
<표 3-2> 충남 각 신도시 영향권내의 시군현황	16
<표 3-3> 도농복합시 구분	19
<표 3-4> 시·군별 인구추이	20
<표 3-5> 충청남도 시급도시 계층변화 추이	20
<표 3-6> 충남 시·군 재정규모 변화추이	21
<표 3-7> 조사대상 도시들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23
<표 3-8> 시군내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23
<표 3-9>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24
<표 3-10>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2004)	25
<표 3-11> 관광지 지정현황	26
<표 3-12> 시·군의 강점 및 약점	32
<표 3-13> 아산시 SWOT 분석	34
<표 3-14> 공주시 SWOT 분석	35
<표 3-15> 연기군 SWOT 분석	36
<표 3-16> 홍성군 SWOT 분석	37
<표 3-17> 예산군 SWOT 분석	38
<표 3-18> 금산군 SWOT 분석	39
<표 3-19> 논산시 SWOT 분석	40
<표 4-1> 독일 도시네트워크의 사례	42
<표 5-1> 광역중심지별 도시기능과 특화산업	70
<표 5-2> 관광권역 설정 및 관광특화	7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3
<그림 2-1> 충청남도 종합계획도	5
<그림 2-2> 충남 지역의 신도시 위치	8
<그림 2-3> 행정중심복합도시	8
<그림 2-4> 아산신도시	9
<그림 2-5>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9
<그림 2-6> 대전 서남부 신도시	10
<그림 2-7> 태안 기업도시	10
<그림 3-1> 충남지역의 4대 권역	12
<그림 3-2> 영향권(안) 도출 흐름도	13
<그림 3-3> 충청권의 통근·통학 통행량 분포	14
<그림 3-4> 도시간 편도 시외버스 총운행 횟수	15
<그림 3-5> 아산·천안시 접근도	17
<그림 3-6> 대전서남부권 접근도	17
<그림 3-7> 충남도청이전 대상지 접근도	18
<그림 3-8> 행정복합도시 접근도	18
<그림 3-9> 충남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21
<그림 3-10> 공주시 중심시가지 현황도	27
<그림 3-11> 연기군 중심시가지 현황도	28
<그림 3-12> 아산시 중심시가지 현황도	28
<그림 3-13> 홍성군 중심시가지 현황도	29
<그림 3-14> 논산시 중심시가지 현황도	30
<그림 4-1> 독일 도시네트워크 사례	43
<그림 4-2> 'Quadriga' 도시네트워크	45
<그림 4-3> 도시네트워크 'Quadriga'의 조직구성	47
<그림 4-4> 트리어의 화물교통센터(GVZ)	55

<그림 5-1> 충남권의 중심지 체계	65
<그림 5-2> 신도시와 주변의 네트워크	66
<그림 5-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으로 시장정비사업 개념도	72
<그림 5-4>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및 도시공간구조 회복 개념도	72
<그림 5-5> 시장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을 통한 상권회복 및 신규 상권 조성개편(안)	73
<그림 5-6> 재래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비방식 모식도	73
<그림 5-7> 관광거점도시의 위치와 상호 관계	76
<그림 5-8> 충청남도 교통망도	80
<그림 5-9> 지역협력발전사업 체계	82
<그림 5-10> 지역간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83
<그림 5-11> 지역협력발전사업 연계체계	84
<그림 5-12> 지역협력발전사업 추진절차	85
<그림 5-13> 계획 세포방식의 운영과정	86
<그림 5-14>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절차	88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국토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와 충남지역의 핵심사업과 더불어 태안의 기업도시, 아산권 배후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큰 기대와 더불어 기존 주변 소도시의 약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에 생활권이나 상권이 집중돼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불균형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여러 부문별 전략방안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권내의 소도시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분석을 위해 취득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기준년도로서 2004에서 2006년 사이 기간이다. 정책 활용목표년도는 제도개선 및 정책입안기인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서 정책의 중간평가 및 도

약기인 2012년,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의 목표 연도이자 정책의 성숙기로서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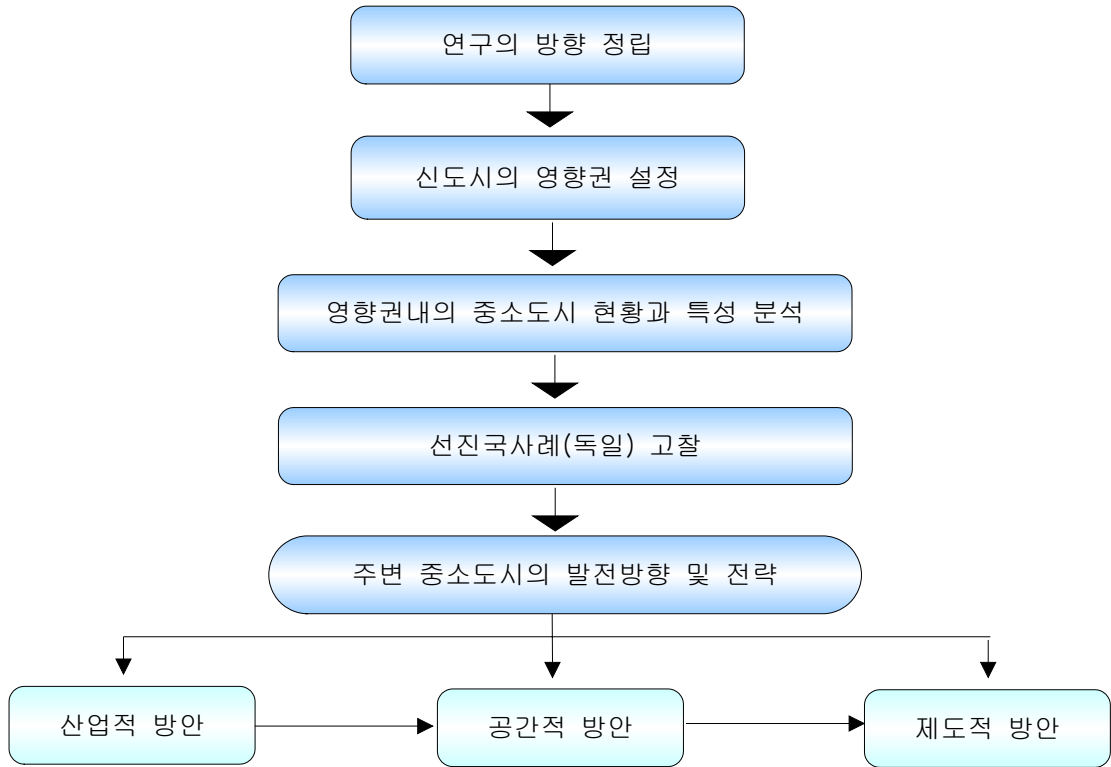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로는 충청남도내 신도시대상지 주변 시·군이 포함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중심 시·군인 공주시와 연기군, 아산신도시 주변의 아산시, 도청이전신도시 주변의 홍성군과 예산군 그리고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 주변의 논산시와 금산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다.

내용적 범위로는 여러 개발방식 중 거점네트워크 개발방식에 중점을 두고 산업적, 공간구조적 그리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례분석은 계획과정이 발달된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현화 과정으로서의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2) 연구의 방법

국토종합수정계획과 충남도종합수정계획(안) 등 위계별 계획을 통하여 충남도내 신도시 건설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신도시들의 계획특성들을 파악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영향권내 중요 시·군들의 현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사례(독일) 고찰해 보고 주변 시·군의 발전방향 및 전략을 산업적, 공간적,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경제적 방안 측면에서 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체계와 광역적 관광개발체계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주요 발전잠재력 상호간 광역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간구조적 방안으로서는 연계교통체계와 더불어 정주체계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체계정립을 위한 뒷받침으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 등 사이의 행정적 체계와 재정 지원적 체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제2장 충남 신도시의 개발방향

1. 위계별 공간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지방자립과 지역상생을 촉진하는 7+1의 다핵연계형 국토의 공간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계획목표중 하나로서 다핵분산형 국토구조,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상생하는 국토를 표방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권역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육성하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형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분권화 흐름속에서 계획집행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계획 집행의 거버넌스 체계가 계획된다.

충청권역에서는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계획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중추도시의 광역권 관리로서 보령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거쳐 영덕으로 이어지는 동서간의 내륙축 형성과 주변 도시간 네트워크형 광역도시권을 형성하는 계획이 되어있다. 그리고 백제,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권 형성기반을 조성하고 해안·내륙의 자연,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테마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10대 광역권 중 아산만권은 하역 지역균형개발의 핵심거점 및 지방의 세계화 전지기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대중국 교류증대에 대비한 물류기능 분담 거점 및 수도권 산업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아산만권을 포함하여 인천에서 광양만, 진주로 연계한 신산업지대망이 구축되어질 계획이다.

2)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년)

충남도가 국가중추행정청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함은 물론 지역내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계획의 목표로서 미래를 창조하는 산업·물류·해양중심지역과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중심지역,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농업중심지역 그리고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생활·복지중심지역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살기좋은 도시·농촌 정주기반 형성, 경제력 있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특색 있는 지역문화 매력 있는 관광 진흥, 신속하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환경 조성 등의 사항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공간적인 개발방향은 4대 개발권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1〉 충청남도 종합계획도



자료: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표 2-1〉 4대 개발권

권역	대상지역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연기)
서해안권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당진)
백제권	공주, 부여, 예산, 청양, (논산)
금강권	논산, 연기, 금산,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관련 개발방향으로서 수도권 이전기능의 선별적 수용하면서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배후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주환경으로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고 주거공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도시가 계획되어지는데, 천안과 아산을 잇는 신도시를 건설토록 하며, 지역의 통합적 성장관리를 위해 천안·아산광역계획 수립이 검토되고 있다.

2. 신도시 개발의 방향

신도시란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계획적, 인위적인 면이 강한 정책적 공간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곳을 의미하며, 세계적으로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됐다. 세계 여러나라의 개발여건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 적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국토 및 지역개발과 대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목표의 추진을 위해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던 신도시 개발이 요즘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기초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전국에 걸쳐 혁신, 기업도시의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낙후지역에 자족기능과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 여건을 갖춘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전략의 실현방안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큰 기대와 더불어 기존 주변 소도시의 약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에 생활권이나 상권이 집중돼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불균형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발이 주변 시·군과 상생발전하는 형태로 계획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과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반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충남 신도시들의 특성

1) 충남 지역구조의 성격

충남도의 북부내륙권과 북해안권은 수도권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지역으로 인구와 기업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반하여, 중부권 이하의 시·군들은 상대적으로 인구와 기업

체수가 정체이거나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인구의 총량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군별로 균일치 못하며, 지역간 인구불균형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북부지역의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충남 동부내륙은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주변 시군과 연계발전을 추구하고 있음과 더불어 충남 서부해안은 서부내륙의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할 전망이다.

충남지역은 개성적이고 다양한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보유한 강점과 함께 중추 국가행정 기능과 신규 지방행정기능의 이전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으로서의 기회요인이 있다. 반면, 도내 동서간 지리적, 연계교통체계가 미흡하고 산업 경제 발전 거점의 편중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약점과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주요기능 유출가능성과 FTA확대 등으로 주요생산기반인 농·산·어촌의 1차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표 2-2〉 6대 정주생활권

개발경영권	정주생활권	중심지체계			대상지역
		광역중심지	시·군중심지	기초중심지	
북부권	북부내륙권	천안 (신도시)	아산	성환, 성거, 인주	천안, 아산
서해안권	북부해안권	서산	당진, 태안	대산, 합덕, 안면	서산, 태안, 당진
	중부권	홍성	예산, 청양	광천, 삽교	홍성, 청양, 예산
	남부해안권	보령	서천	장항, 웅천	보령, 서천
백제권	백제고도권	공주	부여	유구	공주, 부여
금강권	대전근교권	대전 논산	계룡신도시, 금산, 조치원	강경, 연무, 추부	논산, 금산,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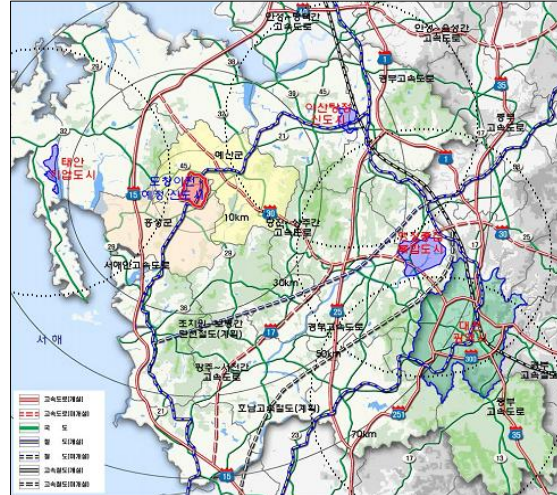
2) 충남지역의 신도시

충남도에 건설되는 신도시들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행정의 중추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태안의 기업도시시는 관광·레저형이며, 주거 중심의 신도시는 아산 신도시와 대전 서남부에 입지한 서남부1,2,3단계지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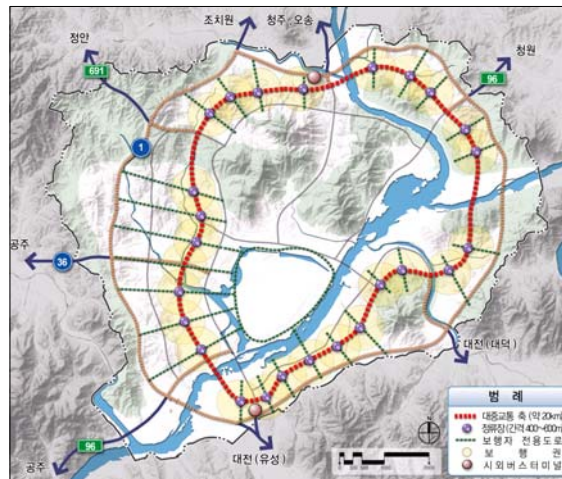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

- 사업목표 :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
- 유치기관 : 중앙행정(12부 4처 2청 등), 문화/국제교류, 첨단지식기반, 대학/연구, 의료/복지, 도시행정 등
- 위치 :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과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 면적 : 72,910,000m²(2,205만평, 주변지역: 223.77km²)
- 사업기간 : 1단계('07~'15년), 2단계('16~'20년), 3단계('21년~'30년)
- 계획인구 : 500,000인(목표인구)

<그림 2-2> 충남 지역의 신도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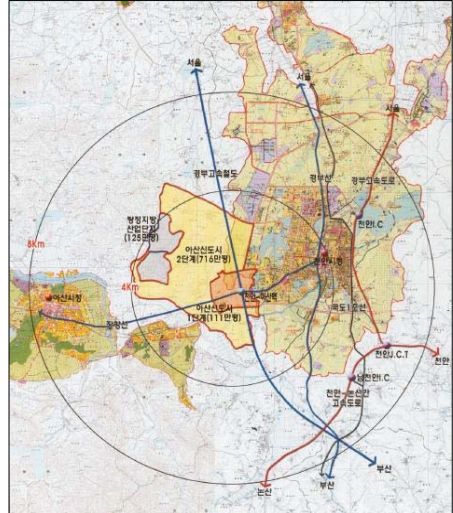
<그림 2-3> 행정중심복합도시



■ 아산신도시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및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 일원
- 면 적 : 20,529천m²(621만평), 탕정지방산단(4,132천km²)
 - 1단계(배방지구), 3,669천m²(약 111만평)
 - 2단계(탕정지구), 16,860천m²(약 510만평)
- 사업기간 : 1단계('04.01~'08.12), 2단계('07.12~'15.12)
- 계획인구 : 168,000인
- 시 행 자 : 대한주택공사

〈그림 2-4〉 아산신도시



■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 사업목표 : 충남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삼교읍 일원
- 면 적 : 9,876천m²
- 사업기간 : '07.07~'20.12
- 계획인구 : 100,000인(목표인구)
- 시 행 자 :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공동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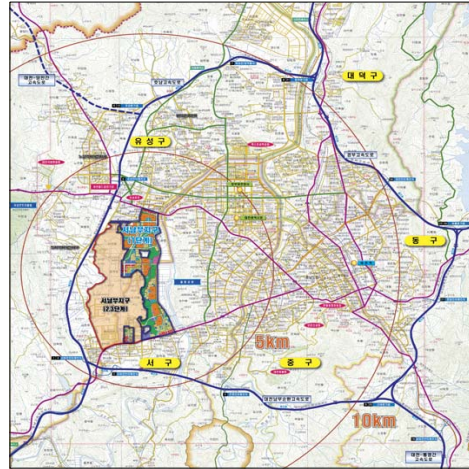
〈그림 2-5〉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 대전 서남부 신도시

- 위 치 : 대전시 서구 및 유성구 일원
- 면 적 : 14,479천m²(438만평)
 - 1단계 6,049천m²(약 183만평)
 - 2,3단계 8,430천m²(약 255만평)
- 사업기간 : 1단계('06 ~'11),
2,3단계('11~'20)
- 계획인구 : 150,000인
(1단계-63천인, 2,3단계-87천인)
- 시 행 자 : 1단계-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
공사, 대전시도시개발공사

〈그림 2-6〉 대전 서남부 신도시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면 적 : 142,734,000m²
- 사업기간 : 부지공사 2007년~2011년, 시설
공사 2011~2020년
- 계획인구 : 15,000인(6,000가구)/목표관광
객: 연 770만명
- 시 행 자 : (주)현대건설

〈그림 2-7〉 태안 기업도시



제3장 신도시의 영향권 분석

1. 충남 공간계획속의 권역¹⁾

충남권역에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조성, 아산신도시 및 태안기업도시 건설과 동일권역이 대전서남부 개발사업 등이 2015년을 전후로 하여 성숙되어, 향후 10년간 대전충남권역에서는 각 권역별 지역개발 및 신도시 개발방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남부권(공주시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과정에 따른 배후지역으로 관리(행정중심도시 연계 복합산업단지 등)
- 서남부권(홍성군 등)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의 로드맵 진행과정과 대전~당진, 대저~서천간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주변지역의 차별화된 소규모개발(친고령특구, 웰빙타운 등)
- 동북부권(천안시 등)은 수도권과의 연계(담)화 과정 및 아산, 천안지역의 주거, 산업 벨리형성과정 분석을 통한 틈새 개발(외곽지역 명품전원주거단지 등)
- 서북부권(태안군 등)은 안면도 개발 및 태안기업도시의 조성과정과 석문국가산단의 추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유력지역 등인 점을 감안한 산업과 해양관광레저의 벨트화를 고려

1) 손순금(2007), 충남신도시 개발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열린충남 통권 40호, pp.90-91

〈그림 3-1〉 충남지역의 4대 권역



2. 접근성에 따른 영향권

1) 영향권(안) 도출과정

본 연구에서는 유사 영향권 설정사례를 검토하여 영향권(안)을 도출한 후에, 접근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향권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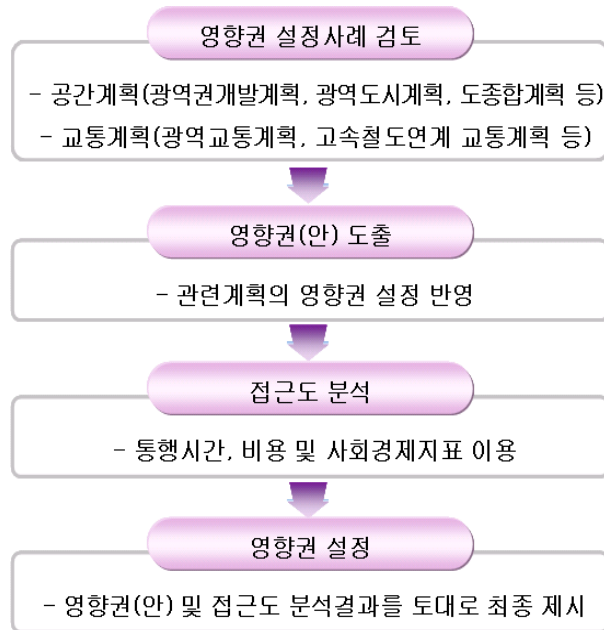
첫째, 유사 영향권 설정사례로는 광역권개발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 공간계획과 광역교통계획 등 교통계획에서 설정한 권역을 검토하였다.

둘째, 접근도는 신도시 중심을 기준으로 최단통행시간을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영향권은 계획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와 그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통DB의 O/D교통량을 사용하여 교통망 평형통행배정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을 추정하였는데 시간산정은 emme2를 이용하였고 평균속도(40km)를 적용하였으며, 산정된 준별 접근도를 GIS자료로 변환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접근시간별로 버퍼링화하여 영향권을 표현하였다.

〈그림 3-2〉 영향권(안) 도출 흐름도



2) 통근권 검토

(1) 통근권 설정 기준

통근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조건에 의하여 통근권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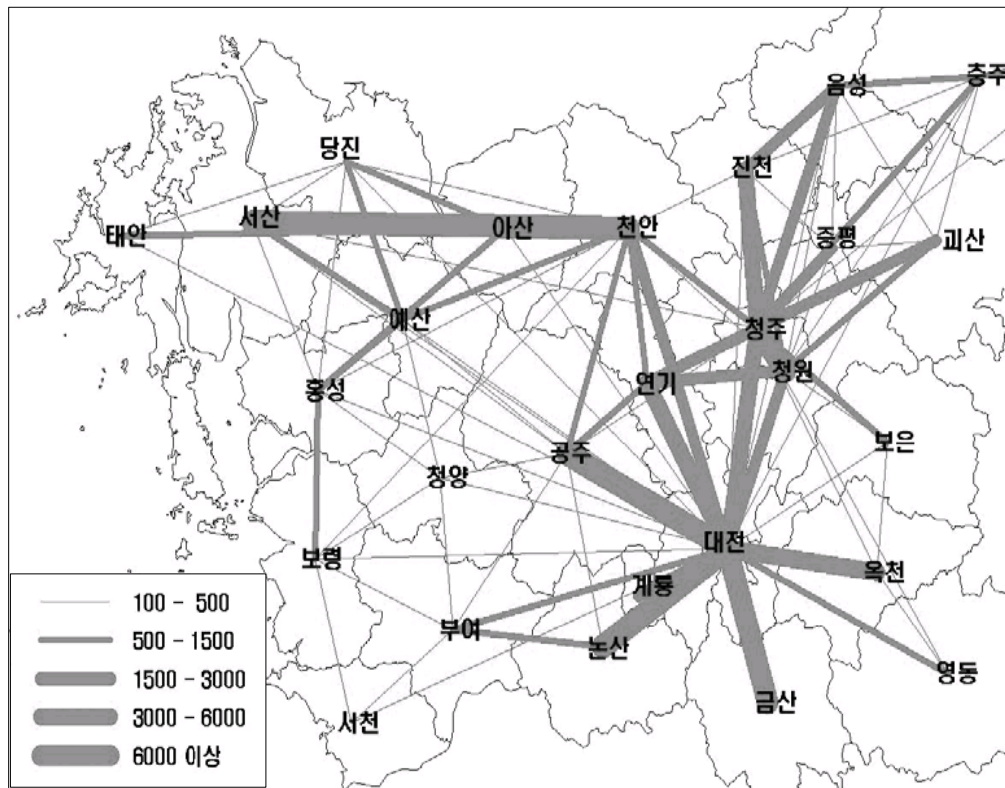
첫째, A지역의 외부통근지 가운데 최대 통근지가 B지역이면 A지역은 B지역의 통근권에 포함한다. 단, 위 경우에도 최대통근지로의 통근자수가 총통근자수의 1% 미만이면 특별하게 의존적인 외부통근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B지역의 통근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A지역에서는 B지역으로, B지역에서는 C지역으로 가장 많이 통근한다면 A지역은 C지역의 통근권에 포함하였다.

셋째, A지역에서는 B지역으로, B지역에서는 A지역으로 각각 가장 많이 통근한다면 상대

적 통근률(외부통근자 가운데 상대지역 통근자수)이 낮은 지역을 통근중심지로 선택하였다. 단, 위 경우에도 최대통근지로의 통근자수가 총통근자수의 1% 미만이면 특별하게 의존적인 외부통근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대지역의 통근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3-3〉 충청권의 통근·통학 통행량 분포



자료: 충남발전연구원(2007), 열린충남 40호,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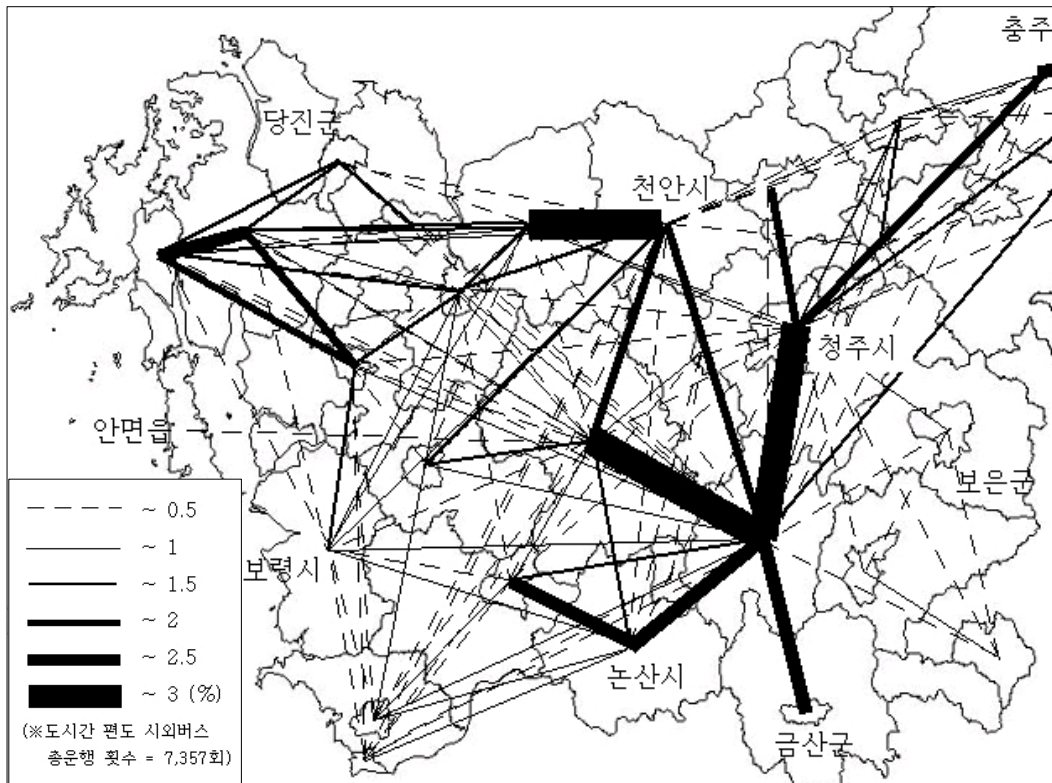
〈표 3-1〉통근패턴으로 본 시·군간 연계 (2005년)

통근권	직접연결지역	간접연결지역
대전	옥천군(40.0), 영동군(13.0), 공주시(9.4), 논산시(11.2), 계룡시(32.3), 금산군(18.5), 연기군(17.8), 무주군(3.7)	· 논산시←부여군(12.5)
천안시	아산시(29.7)	· 아산시←예산군(15.7)
서산시	태안군(20.6), 당진군(4.4)	-
홍성군	보령시(3.5), 청양군(12.2)	-

주) () 안은 지역내 발생통근자 중 중심도시로의 통근자 비율(%)

자료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그림 3-4〉 도시간 편도 시외버스 총운행 횟수



자료: 국가지리정보원 한국지리지(충청편) 2003, p.183.

3) 충남 각 신도시의 영향권

본 연구에서는 30분 이내를 접근가능한 지역을 직접영향권으로 설정하였고, 1시간이내에 접근가능한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직접영향권은 공주시, 연기군이고, 도청이전신도시의 직접영향권은 홍성군, 예산군이고, 아산신도시의 직접영향권은 천안시, 아산시이다. 대전서남부권의 직접영향권은 논산시와 금산군이 해당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간접영향권은 부여군·청양군·논산시·아산시 일부이며, 도청이전신도시의 간접영향권은 서산시·당진군·태안군·청양군 일부이다. 아산신도시의 간접영향권은 당진군·예산군·공주시 일부이며, 대전서남부권의 간접영향권은 공주시와 연기군 일부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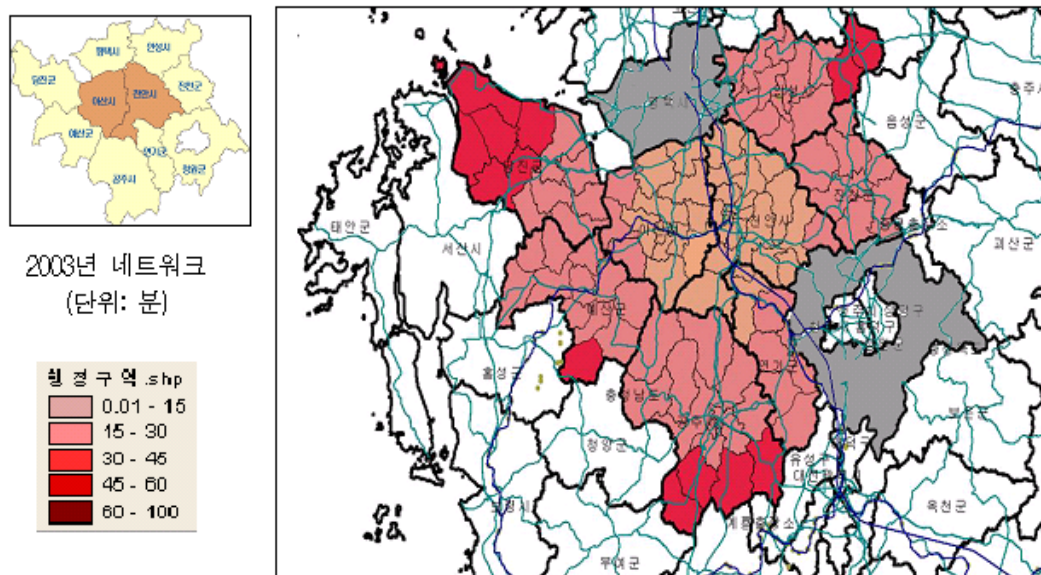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신도시 건설로 인한 직접영향권에는 천안·아산·공주·논산·계룡·홍성·예산·연기 등 8개 시·군이 해당되며, 간접영향권에는 보령과 서천을 제외한 모든 14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러한 분석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간의 접근성이 향상된데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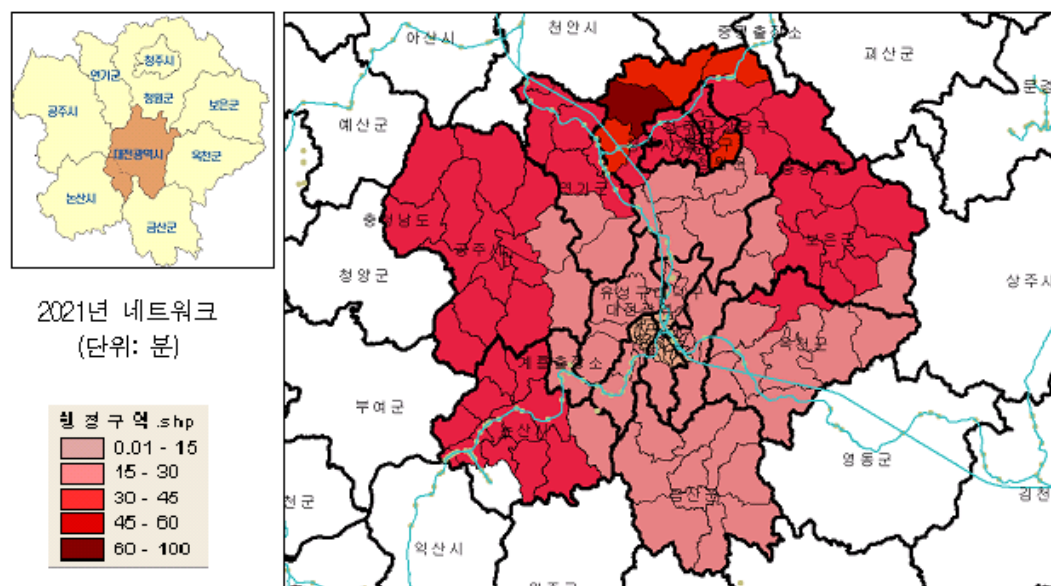
〈표 3-2〉 충남 각 신도시 영향권내의 시군현황

신도시	직접영향권 (30분 이내)	간접영향권(30~60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주시, 연기군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아산시 각 일부
도청이전 신도시	홍성군, 예산군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청양군 일부
아산신도시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 예산군, 공주시 각 일부
대전서남부권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 연기군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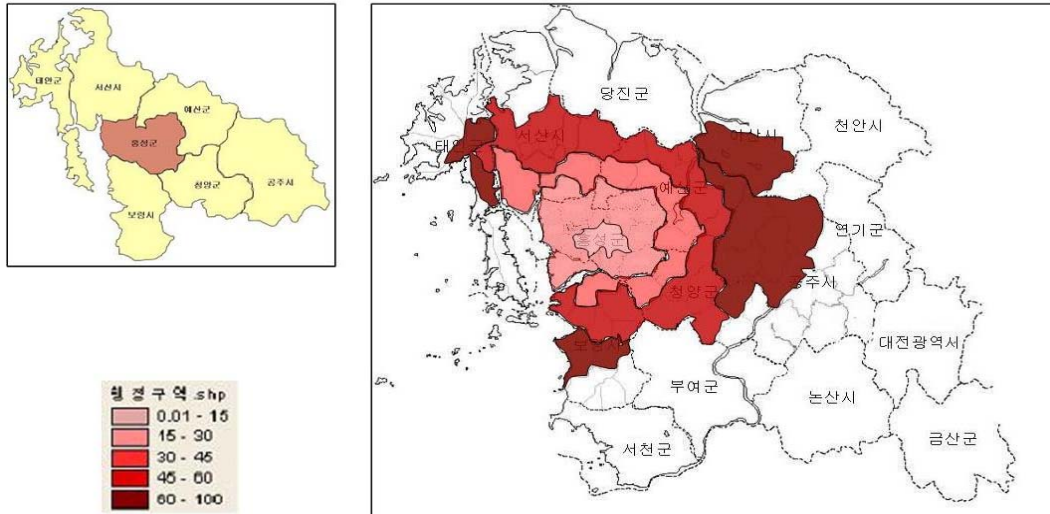
〈그림 3-5〉 아산·천안시 접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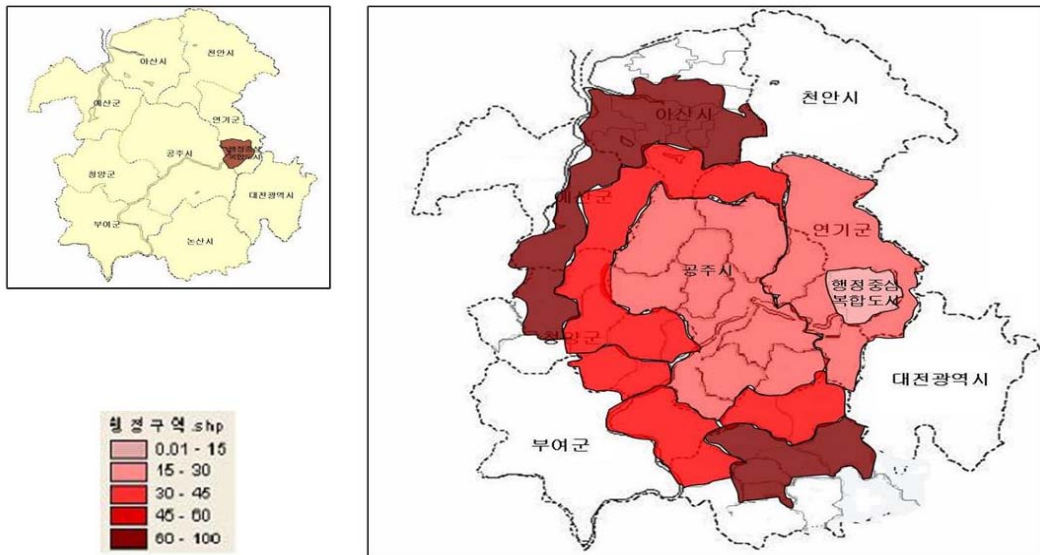
〈그림 3-6〉 대전서남부권 접근도



〈그림 3-7〉충남도청이전 대상지 접근도



〈그림 3-8〉행정복합도시 접근도



3. 영향권내 주변지역의 현황

충남도에는 7개 시와 9개 군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로 비교대상이 될 만한 시·군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충청남도에 개발되는 신도시의 직접영향권에 해당하는 시·군들을 우선적인 연구대상지역으로 고려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공주시, 연기군과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의 홍성군, 예산군, 아산신도시 주변의 아산시 그리고 대전 서남부권 주변의 논산시와 금산군이 주요 분석대상지로 선정되었다.

1) 인구지표 현황

〈표 3-3〉 도농복합시 구분

구 분		충청남도 시·군	
		도농복합시	도농통합시
대도시(100만이상)		대전광역시	
시부	50만이상		천안시
	10-30만	논산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5만-10	계룡시*	보령시
군부	5만이상	당진군**, 홍성군, 예산군, 연기군, 부여군, 태안군, 서천군, 금산군	
	5만이하	청양군	

주) 도시인구규모별 유형분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계룡시는 유일한 5만이하의 중소도시임.

** 당진군은 10만이상의 군지역임

위 표에서 ‘도농복합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자체, ‘도농통합시’는 시와 군이 통합하여 시가 된 지자체를 의미한다.

〈표 3-4〉 시·군별 인구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4년	2006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95-‘06)
아산시	158,737	185,847	205,057	208,448	2.85
공주시	138,202	137,104	131,140	130,595	-0.5
연기군	80,931	80,851	84,455	85,395	0.50
논산시	150,190	142,828	136,503	135,210	-1.11
금산군	70,831	64,785	60,620	59,014	-1.52
홍성군	101,549	95,369	91,223	91,432	-0.91
예산군	110,045	101,692	92,487	91,449	-1.54
태안군	72,206	68,746	63,939	64,075	-1.02

〈표 3-5〉 충남도 시급도시 계층변화 추이

구분	1985		1995		2005	
	도시	개수	도시	개수	도시	개수
100만명 이상			대전광역시	1	대전광역시	1
50~100만명	대전시	1			천안시	1
30~50만명			천안시	1		
10~30만명	천안시	1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4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논산시	4
10만명 이하					보령시, 계룡시	2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아산시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가지고 있으며, 도농복합시인 논산시가 신규로 지정되어 중소도시로 부상하였지만 최근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신도시 직접영향권에 있는 대다수 시·군들이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주체계상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중간 매개기능 또는 결절점 기능을 수행하는 30만명 이하 중소도시의 인구기반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2) 경제지표 현황

(1)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지표로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 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력지수는 평균 70.2이며, 시급도시의 경우 83.5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3-6〉 충남 시·군 재정규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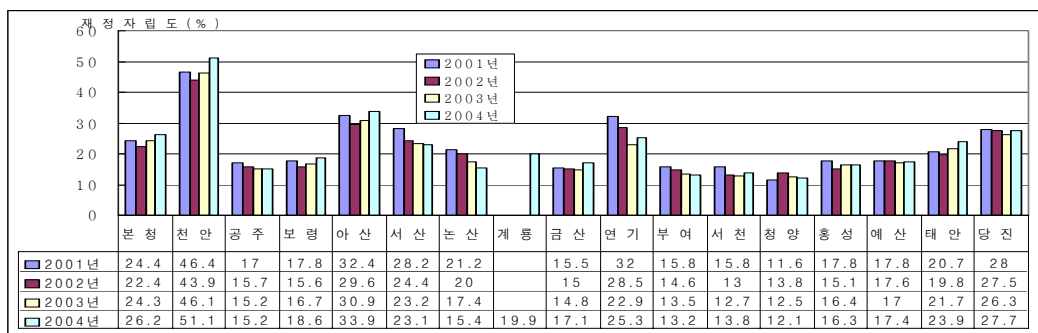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천안시	4,826	6,620	10,327
공주시	2,441	2,424	3,130
아산시	1,774	2,706	5,841
논산시	1,316	2,349	3,083
금산군	781	1,510	2,064
연기군	1,205	2,019	2,230
홍성군	1,212	1,599	2,498
예산군	1,104	1,803	2,400
태안군	1,009	1,900	2,977

주) 1995년과 2000년은 결산, 2005년은 당초예산.

자료: 충청남도, 2006예산개요.

〈그림 3-9〉 충남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2) 산업성장 잠재력

연기군은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 성장산업이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소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있다. 제조업중에는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업이 성장업종이고 고무 및 플라스틱업, 자동차트레일러업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홍성군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사업이며, 농림어업, 소매업, 보험 및 연금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 중에는 음식료품업이 성장업종으로 분류되었고, 출판인쇄기록매체업, 고무, 플라스틱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산군은 부동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성장산업으로 가지고 있으며, 농림어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다. 제조업 중에는 조립금속제품업이 성장업종이고, 고무 및 플라스틱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이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금산군은 전기가스증기업, 통신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 기타서비스업이 성장산업이고 성장잠재력산업으로는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등이 있다.

논산시는 통신업, 부동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회원단체가 성장산업이고 성장잠재력산업은 광공업이다. 제조업 중에는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이 성장업이고 펄프종이제품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태안군은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성장산업이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여행알선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있다. 제조업중에는 섬유제품업이 성장잠재력이 있으며 대부분의 제조업이 정채산업이다.

〈표 3-7〉 조사대상 도시들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0년	2004년	2006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00-06)	2000년	2004년	2006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00-06)
아산시	10,248	10,888	11,327	1.75	55,744	70,470	82,840	8.10
공주시	8,468	8,243	8,200	-0.53	34,863	32,998	33,065	-0.86
연기군	5,281	5,255	5,212	-0.22	26,728	28,050	27,610	0.55
논산시	9,529	9,266	9,077	-0.79	34,030	32,636	33,803	-0.12
금산군	4,545	4,459	4,548	0.01	17,872	17,202	18,212	0.32
홍성군	6,917	6,231	5,943	-2.35	21,176	20,504	21,479	0.24
예산군	6,190	5,881	5,847	-0.92	21,040	21,616	21,966	0.73
태안군	4,154	4,390	4,506	1.41	13,283	14,186	15,455	2.73

3) 근린시설지표 현황

(1) 의료시설

의료의 양적 서비스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판단되나, 의료의 질적 서비스면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병원이 없는 시·군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병원이 없는 시급도시는 전체 2개 지역에 이르며, 군지역의 경우는 7개 지역에 종합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표 3-8〉 시군내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

구 분	시급도시	군지역
지역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계	2	7

〈표 3-9〉 충청남도 시·군별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공주	금산	논산	아산	연기	예산	태안	홍성
총 계	216	27	15	12	16	9	14	7	13
박물관('05)	34	11	2	2	5	2	3	1	2
미술관('05)	6	2	-	1	1	-	-	-	-
공공도서관('05)	42	3	2	3	4	1	3	2	2
문예회관('05)	11	1	1	-	-	1	1	1	1
공연장('05)	27	2	2	1	1	1	2	1	1
영화관('05)	25	2	2	2	2	-	2	-	2
실내	19	2	1	1	2	-	1	-	2
야외	6	-	1	1	-	-	1	-	-
문화의집('05)	10	1	2	-	1	-	-	-	-
문화원('05)	17	1	1	1	1	1	1	1	1
국악원('05)	1	1	-	-	-	-	-	-	-
전수회관('05)	10	1	1	-	-	-	-	-	1
청소년시설('05)	33	2	2	2	1	3	2	1	3
청소년문화의집	10	2	-	1	-	1	-	-	1
수련장	23	-	2	1	1	2	2	1	2

자료: 문화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5

문화관광부, 전국 공연장·공연예술단체 주소록, 2005

전국 문화의집 연합회, 문화의집 조성·운영현황, 2005

전국문화원연합회, 지방 문화원 현황, 2005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건립현황, 2005

(2) 사회복지시설

〈표 3-10〉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2004)

(단위: 개소, 인, %)

구분	총 계		아동복지 시 설		노인복지 시 설		장애인복지 시 설		여성복지 시 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시설 수	수용 인원
계	74 (100)	5,513 (100)	16 (100)	963 (100)	29 (100)	1,278 (100)	13 (100)	1,148 (100)	4 (100)	47 (100)	11 (100)	1,899 (100)	1 (100)	178 (100)
시 부	41 (100)	3,621 (100)	9 (100)	600 (100)	10 (100)	653 (100)	11 (100)	1,053 (100)	4 (100)	47 (100)	7 (100)	1,268 (100)	- (-)	- (-)
공주 시	9 (22.0)	800 (22.1)	- (-)	- (-)	2 (20.0)	267 (40.9)	4 (36.4)	333 (31.5)	2 (50.0)	35 (74.5)	1 (14.3)	165 (13.0)	- (-)	- (-)
아산 시	6 (14.6)	443 (12.2)	1 (11.1)	25 (4.2)	3 (30.0)	212 (32.5)	1 (9.1)	79 (7.5)	- (-)	- (-)	1 (14.3)	127 (10.0)	- (-)	- (-)
군 부	33 (100)	1,892 (100)	7 (100)	363 (100)	19 (100)	625 (100)	2 (100)	95 (100)	- (-)	- (-)	4 (100)	631 (100)	1 (100)	178 (100)
금산 군	3 (9.1)	128 (6.8)	2 (28.6)	102 (28.1)	1 (5.3)	26 (4.2)	- (-)	- (-)	- (-)	- (-)	- (-)	- (-)	- (-)	- (-)
연기 군	9 (27.3)	703 (37.2)	1 (14.3)	72 (19.8)	5 (26.3)	138 (22.1)	1 (50.0)	77 (81.1)	- (-)	- (-)	1 (25.0)	238 (37.7)	1 (100)	178 (100)
홍성 군	4 (12.1)	329 (17.4)	1 (14.3)	37 (10.2)	2 (10.5)	90 (14.4)	- (-)	- (-)	- (-)	- (-)	1 (25.0)	202 (32.0)	- (-)	- (-)
예산 군	4 (12.1)	108 (5.7)	1 (14.3)	43 (11.8)	2 (10.5)	17 (2.7)	- (-)	- (-)	- (-)	- (-)	1 (25.0)	48 (7.6)	- (-)	- (-)
태안 군	1 (3.0)	43 (2.3)	1 (14.3)	43 (11.8)	- (-)	- (-)	- (-)	- (-)	- (-)	- (-)	- (-)	- (-)	- (-)	- (-)

자료: 충청남도, 충남통계연보, 2005.

(3) 문화시설

〈표 3-11〉 관광지 지정현황

관 광 지 명	위 치	면 적(m²)	지 정 일	비 고
계	25지구	13,499,182		
신 정 호	아산 방축	271,169	1971. 5. 20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예당 저수지	예산 음봉	143,000	1986. 6. 28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곰 나 루	공주 웅진	139,000	1987. 7. 24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안 면 도	태안 안면	3,815,456	1991. 2. 22	국제적 관광휴양지
덕 산 온 천	예산 덕산	723,575	1987. 6. 3	온천자원개발
아 산 온 천	아산 음봉	844,000	1991. 3. 15	온천숙박 중심관광지
마 곡 사	공주 사곡	126,000	1993. 11. 9	가족휴양 중심관광지
마 곡 온 천	공주 사곡	621,592	1996. 9. 16	온천자원개발
공 주 문 화	공주 웅진	1,330,000	1996.10. 24	백제문화 중심관광지
남 당	홍성 서부	166,200	2005. 4.19	해양관광, 가족휴양

자료 : 충청남도, 도정백서, 2006.

4) 중심시가지²⁾

충남도 신도시의 직접영향권내에 시·군들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시·군들의 중심시가지이다. 이들 시·군들의 중심시가지는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역과 도로 등 교통망을 중심으로 성장 변화하여 왔다. 내부에는 대부분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상업기능 외에 주요 기능으로서 공공행정기능 뿐만 아니라 역사 관광 기능까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심시가지가 최근에는 상업환경 변화와 공공시설 이전에 따라 약화되고 물리적 상태는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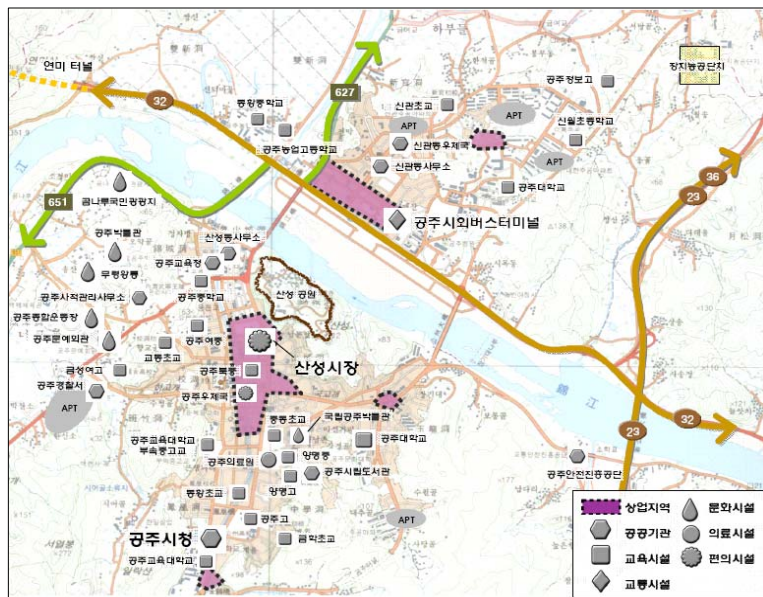
수요는 매년 고도화, 사치화 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소비자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고 상권을 뒷받침하는 배후 상주인구가 부족한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부족, 상인은 대형점 출현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부족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위시한 중심상권의 쇠퇴는 기성시가지의 쇠퇴뿐만 아니라 시·군 전체의 경제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임준홍(2006),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각 시·군의 중심시가지 형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의 중심시가지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어 계획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산시, 논산시(동부), 연기군, 홍성군의 중심시가지는 발생과 성장에 있어 역이, 다른 지역들은 도로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강경), 홍성군, 태안군의 중심시가지에는 읍성, 고건축물 등 역사 문화적 장소가 많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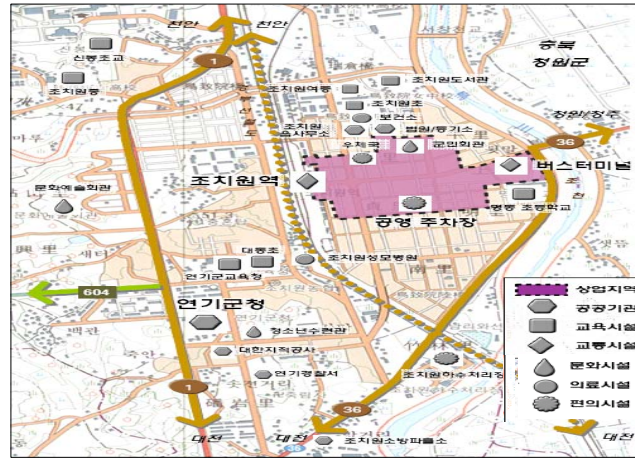
공주시는 공산성, 무령왕릉, 고건축물 등 역사, 문화적 장소가 많이 있다. 중심시가지는 산성 재래시장과 중동상가가 형성되어있는데, 이들 역사·문화시설들과의 유기적 관계는 극히 미약하다. 중심시가지는 고도지구 지정 등 개발 규제에 따라 금강 북쪽의 공주대학교 주변으로 대규모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상주인구의 부족이 중심시가지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인구유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0〉 공주시 중심시가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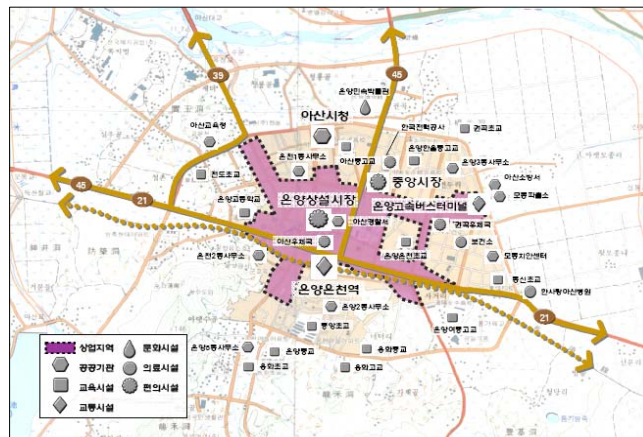
연기군의 중심시가지는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토지이용면에서 상업시설비율이 83%이 상이다. 그러나 소비자요구를 부응하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라 침체를 걱정하고 있으며, KTX개통에 따른 역 이용자의 감소로 많은 우려되고 있다.

〈그림 3-11〉 연기군 중심시가지 현황도



아산시는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주변 온천과 관련되어 호텔을 비롯하여 다양한 숙박시설이 혼재되어 있는데,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정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인근에 중앙재래시장과 터미널이 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산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림 3-12〉 아산시 중심시가지 현황도



홍성군에 역이 중심시가지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고,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입지하여 있어 사람의 동선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홍성재래시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상품화의 미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청신도시 예정지가 있어 개발이

구체화됨에 따라 중심시가지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그림 3-13〉 홍성군 중심시가지 현황도



논산시(동부)는 시청 등 공공시설이 중심시가지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이전한 결과 공공행정기능은 많이 약화되었다. 논산시(강경)는 상권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약화된 대표적인 지역이다.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편의시설 부족이 큰 원인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 서남부권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구와 상권의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각 시·군의 중심시가지가 가지는 관광, 문화, 교통, 산업 등의 요소 잠재력을 살려서 극대화시키는 노력과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3-14〉 논산시 중심시가지 현황도



4. 현황종합 및 여건 분석

1) 시·군의 내부환경

(1) 일반적인 시·군의 강점

우선 시·군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보면, 먼저 자연환경분야에서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대다수의 시·군에서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외 대도시 인접, 해안인접 등 시·군의 지리적 입지, 개발가능지가 풍부한 개발여건, 풍부한 수자원 및 친수공간을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문환경 분야에서는 편리한 교통망을 절반이상의 시·군이 강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외 오랜 기간동안 인접도시의 생활중심지, 산업단지·유통단지·항만 등과 같은 기반시설이 도시내 갖추어져 있는 점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서는 도시내 천혜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지역특산물을 도시의 강점으로 여기고 있다.

(2) 일반적인 시·군의 약점

시·군의 약점을 살펴보면,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지형여건으로 인한 개발가능지 부족 및 지리적 입지, 수자원 부족 등을 들고 있다.

인문환경분야에서는 규제로 인한 개발제약을 가장 많은 도시에서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당 도시들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과 같은 규제로 신규 개발사업을 못하는 점을 도시의 약점으로 인식한다. 그 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도심정비 미비,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 내·외부 순환가로망체계 및 연계 미흡 등을 도시의 약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경제분야에서는 지역산업의 쇠퇴, 특화산업 부재,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연계 미흡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시·군의 내부환경 종합

시·군의 내부환경을 정리해 보면 청정자연환경, 지리적 입지, 편리한 교통망, 인접도시의 생활중심지 기능, 천혜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등을 강점으로 여기는 반면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 도심정비 미비,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 생활편의시설 미비, 지역산업의 쇠퇴, 특화산업부재, 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계 및 개발미흡 등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시·군들이 소유하는 자연, 관광자원, 입지 등 선천적으로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인문환경 및 사회경제분야와 같이 도시내 현대적으로 새롭게 설치된 시설, 산업분야 등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12〉 시·군의 강점 및 약점

	강점	약점
자연 환경	- 청정한 자연환경	
인문 환경	- 지리적 입지 - 편리한 교통망 - 인접도시의 생활중심지	- 인구감소 및 고령화 - 도시위상(정체성)의 미약 및 고착된 도시 이미지 - 규제에 의한 개발제한 - 도심정비 미비 -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 - 생활편익시설(교육, 의료, 문화) 미비 - 편중된 개발로 지역불균형
사회 경제 환경	- 천혜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 지역산업의 쇠퇴(산업구조 취약) - 특화산업 부재 - 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계 및 개발미흡

(4) 시·군의 외부환경 종합

기회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들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여러 국가지원사업들을 통해 도시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접근이 더욱 쉽게 되는 변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친환경시대 도래 등이 도시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에 지역간 무한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시대적 변화를 시·군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교통발달에 따른 인구유출 등과 같은 역효과, 새로운 개발규제로 인한 개발억제 등을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시·군 외부환경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외부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객 유치부분은 기회로도 느끼고 반면에 타 도시들과 무한경쟁으로 인한 위협으로 동시에 느끼고 있다.

2) 시·군의 환경분석

시·군의 환경분석을 통해 진단된 내용을 토대로 시·군에 대한 일반적인 SWOT 분석을 살펴 보았다. 시·군의 SWOT분석을 통해 도출된 발전전략들을 보다 향후 시·군의 발전전략수립에 참고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SO전략은 친환경시대, 주5일 근무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객유입을 위한 청정한 자연환경, 천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특성화(환경, 문화)를 도모하고, WO전략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미약한 도시위상 등의 극복을 위한 도시간 협력전략 및 정부정책적지원을 지자체의 사업들과 연계하는 전략 마련함으로써 협력과 연계를 도모한다. ST전략은 지역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화와 차별화 전략으로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WT전략은 각종 규제에 의한 도시개발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무한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한다.

(1) 아산시

아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인구의 수용을 위한 산업배후지역으로서 역사문화 온천자원과 풍부한 문화행사 등이 있어 도시의 편리성과 시·군의 쾌적함을 겸비한 전원휴양도시로서의 성장잠재력이 있다.

둘째, 충남테크노파크, 순천향대, 호서대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천안시와 함께 충남지역혁신체제의 거점지역이 될 것이다.

셋째, 삼성테크노컴플렉스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추세에 있고 고속철도 역세권에는 첨단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서의 발전잠재력이 무한하다.

넷째, 아산신도시 건설, 서수원~평택간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고속도로 건설이 아산신도시까지 연장 오는 2008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아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취약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최북단으로 수도권 및 천안시와 인접하고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온천개발 및 산업단지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지가가 형성

되어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수도권외의 분산정책에 따른 수도권 공장의 무계획적 입지로 환경문제 및 공해문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제활동가능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아산의 온천지역은 쾌적한 휴양도시의 성격보다 유흥, 환락, 소비성향의 심화 등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흐릴 가능성이 있다.

〈표 3-13〉 아산시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대전권을 연결하는 중간결절점 • 첨단산업(디스플레이) 및 대학 집적 • 자연자원 및 문화관광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지명도, 인접 도시 세력권 영향 • 고품격 생활환경 및 중추 서비스 부족 • 도농간 불균형: 도농간 불균형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 광역교통망 및 지역간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 • 아산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 여가 및 전원생활 수요 증대등의 생활양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외곽도로 건설 등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시통과교통 억제와 물류이동 촉진 • 정차역과 주변 관광지와와의 네트워크 구축 • 정차역과 주변 지역간 교통연계 정비

(2) 공주시

공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은 풍부한 역사·문화유적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로 전국적인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가능하다. 시·군 지역으로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4개의대학이 소재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성장가능하며, 광역교통체계망 확충에 따른 교통시설의 연계개

발로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가능 및 산업입지 여건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반면 취약점으로는 산업구조는 3차산업이 지배적으로 생산기능이 미약하고, 주민소득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관광도시이나 관광소재가 빈약하고 편중되어 있어 관광서비스 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미약하다. 한편, 시가지의 한정된 공간범역으로 도심의 과밀화 및 도시개발 정체가 내재되어 있고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각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없고, 산학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광역적으로는 교통망의 발달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상권의 유출이 심각하다.

〈표 3-14〉 공주시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통팔달의 충남의 광역교통 중심지 • 자연경관요소가 풍부한 도농통합형도시 • 3개 대학 및 각종 연구원 등 고급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도심혼잡 가중 • 시가지분산으로 도시공간기능의 연계성 결여 • 고도의 도시이미지 특화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제약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에 따른 도시위상 제고 •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거점역할 및 새로운 지역특성 부여 기회 증대 • 지리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특성화 전략의 미비로 지역간 균형개발의 문제 유발 • 도시경제기반 미흡에 의한 고용기회 열악

(3) 연기군

연기군은 국토 중심부에 있고 간선교통망의 통과 교차지점으로서 국내 주요거점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기업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충북권의 오송, 오창, 충주첨단산업단지 등 지식기반집적지와 인접하여 연구개발과 연계된 첨단산업의 생산활동의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다. 토지이용측면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금강변, 미호천변, 산림자원을 활용한 개발가능지가 풍부하다.

반면에 정보통신, 금융 등 전문서비스 무역, 국제업무, 대기업의 본사 등 경제적 중추관리기능의 미비로 자립경제기능이 취약하며, 주변 대도시권의 확장으로 남부는 대전권에 북부는 천안권에 동서방향은 공주시와 청주시에 상권 및 생활권이 잠식되고 있다.

〈표 3-15〉 연기군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 수도권 발전축 • 양호한 전국적 접근성 • 풍부한 개발 가용지 • 주변지역의 잘 발달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장방형의 부정형 도시 형상 • 축소된 도시규모 • 지가급등과 고차 인프라 부재 • 주변 대도시권의 세력확장으로 인한 생활권의 잠식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과 유동인구 • 접근성 향상과 중부 내륙항 기회 • 광역도시권내 첨단산업의 파급효과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축소와 도시화경제 구축 난망 • 분리된 생활권과 통일성 부재 • 난개발과 전이지역 가능성

(4) 홍성군

홍성군은 대부분의 지역이 구릉지로 개발가능지가 풍부하며,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 이를 토대로 한 지역특화산업화 및 가공산업 등 지연산업에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화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청운대학교, 해전대학, 홍성기능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이 입지하여 고급 기술 인력 확보가 용이 산학연계를 통한 지식산업발전 잠재력 보유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철도의 복선화, 국도의 확장으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역사적 전통문화자원과 홍성온천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광천 김, 새우젓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의 지역특화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의 잠재력이 높다.

반면, 도시성장을 유도할 사업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시설의 미비로 정보화, 미래사회에 부응한 첨단지식산업의 유치 육성이 어려우며, 주변지역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지역중심기능의 저하되고 홍서의 전통기능인 교육, 행정기능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령화율이 높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편이다.

〈표 3-16〉 홍성군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신도시 건설로 광역교통 연계기능 강화 • 우수한 자연자원 및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 • 충남 중서부권의 전통적 교육중심지 역할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광천간 남북축 중심의 개발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초래 • 경쟁력을 갖는 업종분포가 비첨단업종에 편중 • 상·하수도등 생활환경 시설 미비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 신도시 건설로 인한 중심지 역할 수행 •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 향상 • 수도권 및 천안·아산·서산의 영향으로 산업입지 잠재력 증가 • 유입인구 증가로 지역개발촉진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적인 추세 • 고용기회 부족으로 인구유출 심화 • WTO·FTA 협상에 따라 농·축·수산업 위축 우려

(5) 예산군

예산군은 대부분 우량농지이거나 과수원 등으로 광활한 평지가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지역내 농업테크노파크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벤처농업, 환경농업 등 첨단농업 선진도시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덕사, 덕산도립공원, 예당저수지 등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 및 휴양 거점도시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예산군은 대부분의 개발정책에서 농업부문이 강조되어 사업기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산업단지 개발이 부족하고 고용창출 관련산업의 개발이 미흡하다. 주변 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중추관리, 사회문화시설이 빈약하여 상대적으로 중심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등이 제약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7〉 예산군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관광자원이 풍부 • 도·농 통합형 도시로 가용 토지자원 풍부 • 도시개발의 친환경적 잠재요소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개발 미비 •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도심혼잡 및 비효율적 토지이용 • 농촌형 도시로 재정자립도 취약 • 시가지 분산으로 도시공간기능의 연계성 결여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등 의 개발수요 수혜지 •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접근성향상 • 특성화된 산업기반시설의 유치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시·군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쟁력 약화 • 권역별 특성화 전략의 미비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저해 • 대전, 천안 등 주변도시 급성장과 주변 농촌 지역 쇠퇴로 충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약화

(6) 금산군 SWOT 분석

금산군은 대전광역시와 인접하여 대전과 연계된 광역개발이 가능하고 대전의 대규모 소비시장을 겨냥한 근교농업과 관광레저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국내 최대 인삼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대둔산, 서대산, 금강과 같은 명산 명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연환경은 아직까지 적극 개발되지 않아 인공적 훼손이 적어 산악형과 내륙형 관광개발 가능성이 높다. 금산군 추부면에는 중부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대학교 인근 대학촌 개발 및 대학의 연구기능과 연계한 각종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달이 가능하다

반면, 금산군은 중산간지역형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교육, 문화, 생활환경의 미비로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발생되고 있어 군세 및 재정력의 악화로 재정규모가 미약하고 삶의 질이

충남 시군 중 가장 낮으며, 대전광역시가 인접해 있다는 것이 금산군에는 기회요인이기보다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적 개발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획기적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부재하다. 또한,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 관광, 역사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표 3-18〉 금산군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혜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보유 • 고려인삼 종주지로서의 인식과 이미지 • 인삼 · 약초시장 및 농 · 특산물의 보유 • 대전의 광역생활권이라는 입지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정주성 약화 및 인구 · 산업기능 유출 • 대형 개발사업의 부재 및 지체 • 인삼시장의 시설과 유통구조의 낙후 등 도시 기반 시설 미흡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인한 근교전원도시로 발전 잠재력 제고 • 대전 ~ 통영간고속국도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 대전광역권의 성장에 따른 금산군의 경제, 생활여건 개선시 유출인구 회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의 세력권 확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성과의 외부 유출 • 인접 지역과의 동일테마로 인한 개발 경합 • 국내인삼산업의 국제인삼시장 점유율 저하와 외국 인삼 수입 가능성

(7) 논산시

논산시는 시대별 역사문화자원과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계룡대 등 군사시설의 요지로 이와 관련된 방위산업관련 기업유치에 유리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호남선철도 등 인접 대도시를 배후로 한 광역교통체계의 향상으로 유통 및 산업입지 여건의 양호하다.

반면, 논산, 강경, 연무 연담도시권의 특화기능이 미약하며, 근대농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립경제기반이 미약하고, 백제문화권에서 제외되어 있고, 논산시에 산재된 문화자원의 연계 및 거점개발 미흡하다.

〈표 3-19〉 논산시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체계에 의한 접근성 양호 • 금강권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보유 • 풍부한 개발가능지와 개발 잠재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지 분산으로 도시공간 기능의 연계성 부족 • 생산적인 산업구조 취약으로 고용기회 부족 • 산재된 문화자원의 연계성 부족 및 주요관광지로의 접근체계 미비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과 백제문화권을 연계한 관광개발 활성화 및 실버산업수요의 증대 • 대전·청주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수혜지역 • 인접도시를 배후로 한 유통·물류·산업단지의 개발 잠재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도시지역의 이농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침체 • 고용기회의 부족 및 주변도시의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유출 심화 • 도시여건 및 주변 환경의 급속한 변화

제4장 외국(독일)사례 분석

1. 독일 도시간 네트워크의 사례와 기준

중심지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특히 도시들사이의 협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앞에 광역적인 협동의 중요성은 공간조정과 지역계획을 위한 하나의 열쇠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건설부의 ExWoSt에서 1994년에 광역적 협동의 공간적 계획으로 도시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영역분야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11개의 모델대상이 선정되었다.

공간에 대한 이해조정의 관점에서 도시네트워크의 확장은 네트워크 파트너들의 균등한 협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광역적인 입지조건의 개선과 같은 공간발전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적합한 적용전략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어떠한 기준지침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

도시네트워크의 조직적이고 내용적인 기준사항은 다음 10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1. 자율성 : 네트워크의 작업분야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로운 참가결정
2. 균등성 : 자립성에 바탕을 두어 파트너 도시들의 크기에는 무관하게 균등함
3. 공동적인 목표 : 모든 도시들은 공동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여하고 성과를 공유함
4. 관심에 대한 정체성 : 개별 도시의 잠재성을 함께함으로써 성과의 개선을 기재함
5. 획일성 없음 :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음. 여기에 경쟁이나 갈등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음
6. 다원성 : 네트워크의 목적은 한번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기적인 지속성장과 관련됨
7. 역할분야의 연속성 : 역할의 전이를 통해서든지 조직을 통하여 발생되지 않음
8. 명확한 역할 : 의견교환과 마케팅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 전문성이 필요
9. 공간영향력 : 공간의 잠재성을 활용하게 하는 보완조치 필요
10. 지역적인 연관성 :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의 미래전망을 반영

〈표 4-1〉 독일 도시네트워크의 사례

도시네트워크	참가 도시수	참가 도·광역시 수	광역적인 협의지역	국제간 협의
스테테 쾰트베스트 (Staeteforum Suedwest)	6	3	Baden-Wuerttemberg	-
쾰시쉬-바이어리쉬 네츠 (Saechsisch-Bayerisches Netz)	5	5	Sachsen Bayern	-
마이 (MAI)	3	3	Bayern	-
프리그니츠 (Prignitz)	7	2	Brandenburg	-
란-직- 딜 (Lahn-Sieg-Dill)	8	5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
스테테-크바테트 (Staete-Quartett)	4	2	Niedersachsen	-
엑스포-레기온 (Expo-Region)	6	6	Niedersachsen	-
앙케 (ANKE)	4	4	Nordrhein-Westfalen Gelderland	네델란드
크바드리가 (Quadriga)	5	4	Rheinland-Pfalz Luxemburg	룩셈부르크
케이.이.알.엔 (K.E.R.N)	4	3	Schleswig-Holstein	-
제엔 (SEHN)	5	4	Tueringen	-
호름 (HOML)	3	10	Schleswig-Holstein Mecklenburg-Vorpommern	-

〈그림 4-1〉 독일 도시네트워크 사례



2. 'Quadriga' 도시네트워크 트리어-룩셈부르크 지역

1) 적용전략으로서의 도시네트워크

'Quadriga' 도시네트워크는 ExWoSt의 11개의 모델 중 하나이다. 'Quadriga'라는 용어는 적어도 중간정도의 중심기능을 가진 최소 세 도시들의 공공과 민간 참여자들의 전략적인 동맹으로서 이해된다. 'Quadriga' 도시네트워크는 상위중심지 트리어(Trier)와 지역적 서비스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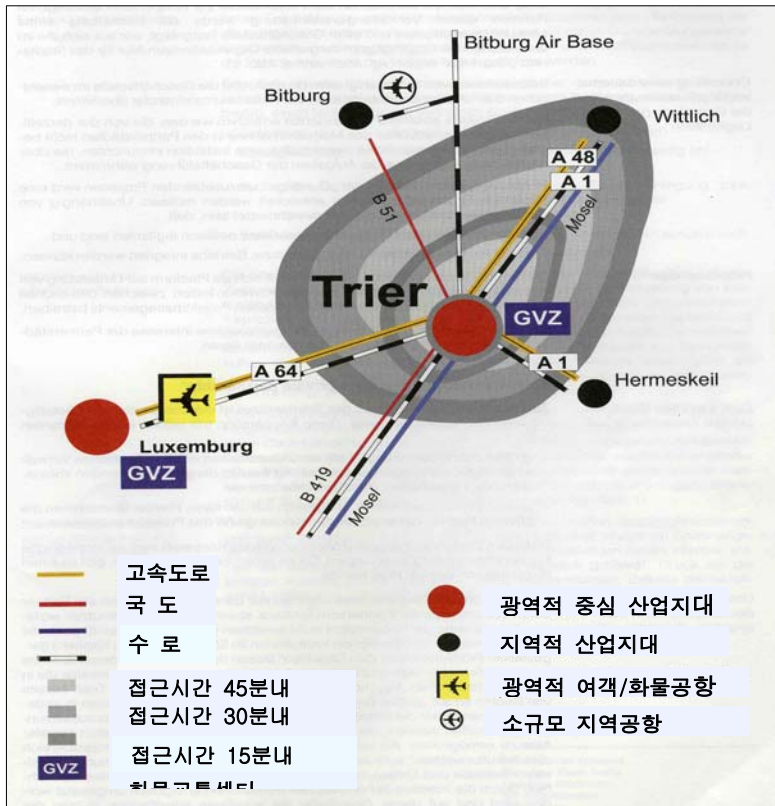
로서 역할을 하는 중간중심지들 빗틀리히(Wittlich), 빗부르크(Bitburg) 그리고 헤어메스카일(Hermeskeil)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도시네트워크는 먼저 트리어 지역의 도시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기획의 적용이 나타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국경을 넘어서 룩셈부르크의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들로 확장되었다. 'Quadriga' 도시네트워크에서 파트너는 전략적인 동맹으로 이해되는데, 목표가 세워지고 어떤 장기적인 공동작업이 보장되면서 모든 참여자들의 장점을 살리게 하는 환경조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도시네트워크에서 성공적인 공동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은 역할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 그리고 협동을 통한 유익에 대한 기대이다. 도시네트워크에서 참여하는 도시와 트너들이 보건, 관광, 문화, 교통시설 그리고 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부문에 초점을 맞춰 협동하였다. 이는 이 부문이 미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기 때문인데, 성장잠재력은 중기적으로 지역경쟁에서 조건개선의 방향으로 기여하였다. 트리어 지역에서 언급된 서비스부문에서 외생적인 잠재력은 먼저 분석되었고, 이것은 도시네트워크의 프로젝트들에서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원칙적으로는 계획시도의 다양성이 어느 한 도시에 의해 적용될 수도 있었으나 공동작업을 통해서 보다 높은 서비스의 질을 이루고자 함이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공동적 이용에서 보다 높은 해결수준에 도달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너지효과를 실현시킬 수 있기 위해서 개발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적용관계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분석시점에서 앞에 놓여 있는 프로젝트분야의 선택이 특정 성공전망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우선순위설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트워크에서 목표에 맞게 자본이 투자되게 하기 위함이다. 임무영역을 정할 때에 가능한 즉각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에 우선 주목을 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이미 단기적인 성공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성공이 재차 동기를 보다 크게 일으키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계속되는 작업을 위해 프로젝트 영역이 선정되어졌는데 심미적, 건강관광, 도시문화주간, 도시간 철도, 도시로지스틱 그리고 화물센터 등 6개의 영역이다.

〈그림 4-2〉 'Quadriga'도시네트워크



2) 도시네트워크 'Quadriga'의 조직구성

도시네트워크에서 임무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하나의 효과적인 공동작업을 위해 분명히 조직화된 임무와 역할들을 가진 다차원의 조직구조가 요구된다. 개개의 프로젝트 영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적절하게 맡기 위해 여섯 영역 각각에 대해 각자 독특한 프로젝트그룹들이 세워졌고 그 안에 프로젝트들이 계속 발전되었다. 프로젝트그룹들은 대부분 프로젝트그룹 지도자로서 도시경영자들에 의해 조직/조정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도시네트워크의 기본개념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프로젝트그룹들에 있어 특정 프로젝트분야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민간인들과 기관들이 민·관 합동의 형태로 참여되었다. 여기에는 장점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민간의 운영은 경제적으로 수행력이 있어 프로젝트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프로젝트의 진전에 대해 원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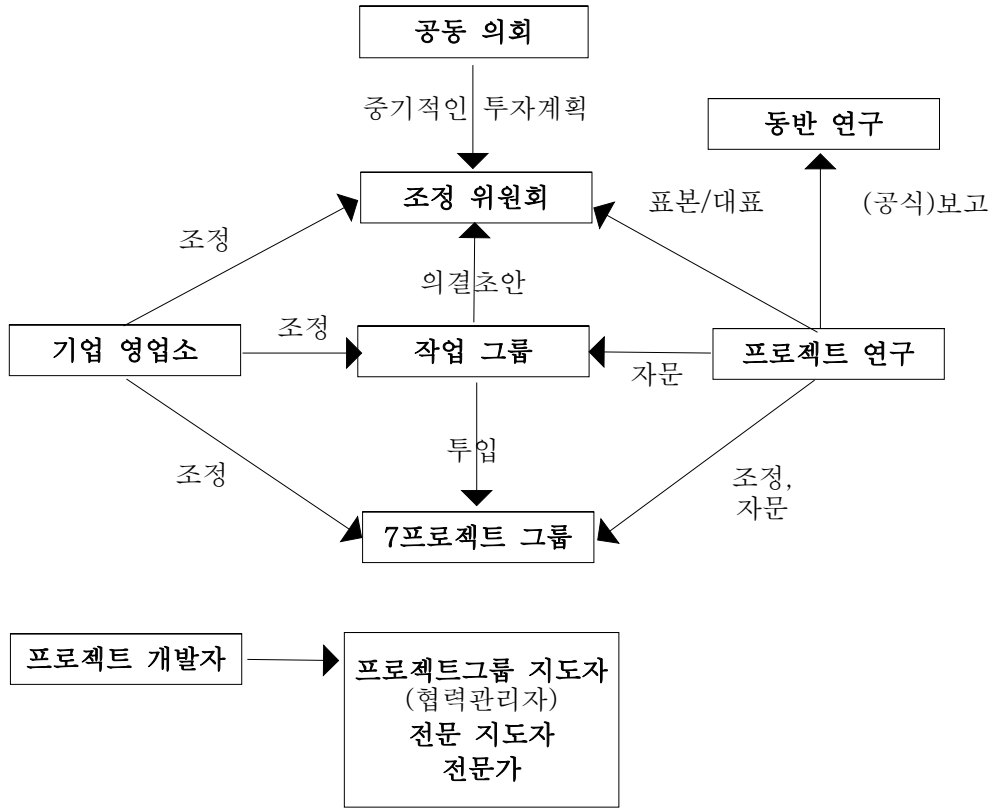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네트워크는 도시들 사이의 관-관 합동의 형태 또는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의 장으로서 이해되어진다.

개개 프로젝트분야에서 활동과 역할에 다양성을 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프로젝트 그룹지도자들이 매월마다 작업그룹 회의로 모이고 여기서 네트워크작업의 내용적이고 조직운영적인 기반들이 준비되면서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공공작업과 재정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영업소들에 의해 작업그룹들이 조직되고 수행되어진다. 중심 조직운영소로서 영업소들은 도시네트워크에서 공동작업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기지가 된다.

장기적인 적용과 관련된 공동작업의 성공확률은 네트워크속의 정치적인 수행자들에 의한 법제화를 통해서 높아진다. 그래서 도시네트워크 초기부터 모든 참여 시의원들에 의해 관리통합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공동작업으로의 기획에 탄력을 준다. 네트워크에서 방향설정에 대한 결정은 일년에 두 번 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의 참석하에서 이루어진다. 시·군의 공동의회모임에서 프로젝트상황의 소개와 더불어 도시네트워크를 위해서 공동의 중기 투자프로그램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결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또한 운영·적용이 가능하고 장기 공동작업을 위한 기본조건이 이루어진다.

'Quadriga'도시네트워크의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네트워크 활동이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종일관된 정치적 합법성과 더불어 민간이해당사자의 개입하에 적용운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개발이 도시네트워크의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 도시네트워크 'Quadriga'의 조직구성



파트너도시들은 3년된 모델기획의 중요한 내용과 조직이 모든 시의회들에 의해 처음부터 만장일치로 지역간 공동의 협약을 체결된다. 트리어 도시에서 운영위가 결정되고 프로젝트연구는 트리어 대학의 TAURUS연구소에서 맡았다. <그림 4-3>은 'Quadriga'의 조직구조에 대한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네트워크 내에서 프로젝트영역에서부터 미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원동력이 필요했다. 이것에는 우선 일자리가 해당되고 이것의 촉매로서 기존의 산업,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목표하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관광적인 입지조건들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7년 2월 파트너도시들의 첫 공동의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도시네트워크의 기획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계획이 정치적으로 입법화되었다.

도시들은 서비스분야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협동하였다. 수행부문은 정신 신체의학, 건강관광, 도시축제주간, 도시간 열차운영, 도시로지스틱, 화물교통센터, 도시네트

워크조직 등의 총 7 프로젝트분야가 있다.

3) 프로젝트 분야

(1) 정신신체의학

건강분야는 도시네트워크에서 높은 수준으로 활용되어 경제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정신신체의학 프로젝트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정신신체의학에서는 신체적인, 정신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들의 통합작업에서 발단되어졌다. 정신신체의학은 주로 이른바 정신신체적인 결함으로 이해되고 심리적인 조건과 관련되고 부분적으로는 사회 요소들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신체의학 프로젝트분야에서 공동의 장이 'Quadriga'로 세워지고 이러한 도움으로 특히 의학적인 시설의 적자들이 최소화된다. 이것을 통해 파트너도시들에 의료비에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획계획의 중요점은 해당 영역에 환자들의 적정 기반시설을 위하여 'Quadriga'의 종합병원들에서 정신신체적인 원인에 되는 질병의 예방과 같은 기존의 기반시설 사이에 개선된 협동을 통해서 적정하게 진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미 트리어에서 이미 협동하고 있는 병원들외에 비트부엔(Bitburg), 헤어메스카일(Hermeskeil) 그리고 뵘트리히(Wittlich) 파트너도시들의 병원들이 그들의 관심을 나타내었다. 비트부엔에 있는 병원은 이미 개별 정신신체적인 진료실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영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협동의 중요한 목표는 의사들,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간호요원들을 위한 심화과정내에서 특정 중요기준들을 세워나가는데 있다. 고등교육의 의학적인 과정과 연구결과의 시스템적인 연계에서 심리치료/정신신체적인 인지의 종합으로, 정신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환자를 재활치료와 같은 진료단계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문서화와 더불어 공동으로 자료모음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수준 있는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영역에서 처음부터 공공적인 기관과 민간기관이 분명한 기획에 방향을 두면서 협동할 수 있다. 우선 병원의 관심은 민간측면에 많이 있고 도정부와 트리어 대학의 관심

은 공공적인 측면에 있다.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적용한 것이지만 공공에 의한 재정을 전제로 공공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반에서 공공과 민간의 프로젝트파트너의 협동이 나타나게 된다.

(2) 건강관광

공공과 민간의 건강시설과 건강서비스를 가지고 도시네트워크의 파트너도시들이 독특한 역사적인 발전과 지리적인 입지, 경관적인 매력에 근거하여 관광 잠재력을 이용하였다.

트리어는 약 2년전부터 건강관리와 관광적인 잠재력 두가지 입지요소를 건강관광의 시장부문으로 같이 묶어서 나타내었다. 식품상담, 건강스포츠 그리고 스트레스 컨트롤과 같이 건강의식의 제공은 문화 그리고 교육관광적인 측면에서 관광적인 공급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 건강관광의 전제조건은 모든 경우에 환자에 대한 외래(이동) 진료인데, 따라서 이러한 부문에서 우선하는 휴가의뢰인들이 대상집단으로서 건강의식과 스포츠활동, 문화와 교육지향의 혹은 체험과 오락의식과 같은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특정 프로젝트들은 총체적인 공급으로서 관광의 동행프로그램과 같이 건강 생산자들과 이에 해당하는 부가업적들로부터 구상하였다. 스트레스 진단 분야가 건강유발자로서 한 면을 형성하는데 트리어 대학의 정신생물학과 정신신체학을 위한 연구센터로부터 개발되었다. 다양한 진단의 기반위에 교제하는 방법과 더불어 역시 스트레스부담으로부터의 예방과 제거 그리고 그에 따른 작용들이 환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건강코스 요소들은 예를 들어 건강스포츠, 긴장완화기술 그리고 식품상담과 같이 제공되어진다. 앞의 예에서 건강관광은 외래의학적인 공급으로서 파악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건강관련 공급요소 외에 또한 부가작용으로 식도락/고급식 그리고 관광, 문화, 휴가 영역에서도 제공된다.

ExWoSt기획 도시네트워크 'Quadrige'는 이러한 숙고위에 기회를 더하게 되는데, 특히 관광 공급요소의 관점에서 파트너도시들 비트부엔, 헤어메스카일 그리고 뷔트리히 등이 그들의 자체적인 관광관련 공급과 트리어 시만의 구상된 프로젝트와 접합시키기 위한 장이 되었다. 연계된 코스관광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공공측은 환경조건을 놓고 혹은 명확한 프로젝트로부터의 적용을 위한 주도역할을 맡고 건강관광 영역에서 트리어 시는 개념적인 작업을 맡았다. 파트너도시들의 관리는 개념적인 기

반위에 호텔과 숙박시설의 대표자와 그리고 관광과 문화시설의 경영자들같이 건강부문의 민간시설들을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

(3) 도시문화주간

ExWoSt기획 도시네트워크 'Quadriga'에서 문화적인 공급이 시간적인 짜임새 있게 네트워크화 되었다. 이것은 문화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네트워크의 중심지들의 주민에게 파트너도시들과 그들의 생활문화를 공유하게 하였다.

“도시문화주간” 프로젝트그룹 내에서 'Quadriga'의 자립적인 문화공급이 이루어져야 했기에 예를 들어 미래예술가를 위한 장려상의 부여를 고려하였는데, 우선 중심지간 제공되는 '작가낭독'과 '산행'과 같이 “도시재즈” 문화분야에 해당한다.

도시들 사이에 공동으로 조직된 일련의 행사들이 독일전후문학을 위하여 매우 의미있는 문학적인 집단인 “그룹 47”의 저자들과 함께 수행되었다. 그룹 47”은 1947년 9월 한스 베르너 리히트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작가와 문학비평가들로 구성된 토의그룹은 하인리히 뵐, 지그프리트 렌츠, 인게보그 바흐만 그리고 귄터 그라스 등과 같은 20세기 후반의 영향력 있는 독일 문학가들을 낳게 했다.

직접적인 동기는 “그룹 47”의 50주년 창립기념인데, 프로그램은 'Quadriga'의 4개 도시들에서 4일동안 각각 다른 주제하에 개별 행사들이 진행되었고 “그룹 47”의 설명과 더불어 독일 현대문학을 위한 역할과 미래전망을 나타내는데 주력하면서 특정 주제분야에서 다양한 코스 발표외에 강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프로젝트분야는 도시들 사이 공공기관의 강도있는 협동으로부터 나타난 것인데, 그룹 47 창립기념 일련의 행사는 무엇보다 공공-공공 파트너쉽으로서 이해되었다.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해서 처음의 실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기업들, 예를 들어 호텔숙박업 같은 업종이 동참하게 되었다.

(4) 도시간 철도운행

도시네트워크 'Quadriga'에서 파트너도시들은 철도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간 연결되는데,

실제로 주말 휴양교통을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부분적으로 고지대철도나 기관차는 이미 현실화 되었다. 우선적으로 도시관광의 목적을 위해 도시들 사이에 이용될 수 있는 철도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주말에 최신형 열차가 제공되었다.

파트너도시들에서 기존의 혹은 새롭게 개발될 수 있는 관광과 문화의 제공은 현장에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형성하였다. 도시네트워크 중심지간에 특정 열차가 제공되는데, 연합단체와의 협의속에서 조정, 적용될 수 있었다. 여기에 긴 열차여행의 지루함을 덜고자 부분구간에서 기차내의 자체적인 동행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Quadriga’는 여기에 알맞은 매체와 파트너도시들의 담당자들을 도시관광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동을 촉진시켰다. 우선 주말에 배당한 도시간 열차의 도움으로 ‘Quadriga’의 주민들을 위한 파트너도시들의 문화적인 행사를 보다 매력적으로 구상하고 서로 연계하는데 노력하였다.

프로젝트내에서 중요한 목표설정은 파트너도시들 주민사이의 관계 형성과 기존의 혹은 조정적용 여지가 있는 문화와 인터테인먼트 지향의 기반시설의 적정화와 같은 ‘Quadriga’내에서 지역적인 정체성의 강화이다.

도시들은 기획에 대한 공공의 전적인 재정지원은 기대할 수 없고 민간경제로 운영될 때 프로젝트의 지속성과 창의성을 도출할 수 있기에 ‘Quadriga’는 민간 철도회사를 기획속에 합류하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획은 공공의 선행작업의 기반위에서 민간 경영자들이 연계되어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5) 도시물류

분업생산의 뚜렷한 증가와 국제간 경제협력 증가 그리고 상승하는 개인 교통수요 관점에서 미래에 중심지들 사이에 점점 증가하는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로운 교통수단, 화물뿐만 아니라 개인교통을 접합시키는 총체적인 교통과 물류의 개념이 요구되었다. 여기에는 도심지 영역(도시물류)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간(광역도시간 물류) 시설 제공이 역시 전제조건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텔레메틱의 활용으로 교통발생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트리어에서는 적정 화물운송시스템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도시네트워크의 파트너도시들에서 역시

우선 조례(기반)에 포함될 수 있었다. 폭넓은 적용영역을 가진 텔레메틱은 총체적인 교통망과 더불어 적합한 정보흐름의 전자망을 통해 화물과 물류교통을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WoSt기획 도시네트워크 'Quadriga'에서 범주에 적합한 통신기술시설의 기반위에 공동의 장이 형성됨으로써 화물교통의 적정화를 가능하게 함. 시가지내의 화물교통망과 같이 트리어 화물교통센터와 도시물류 트리어 사이의 저장기지가 조성되고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활용이 제고되었다.

도시물류 분야의 조례에는 교통비용과 시간의 개선으로 화물과 철도교통의 운영효율화를 이룸으로써 개별 도시들의 자립적인 물류시스템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파트너 도시들에서 기존의 혹은 계획된 화물교통 시설에 대한 정보기술의 적정화와 연계화가 추구되면서 불필요한 화물교통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도시물류 프로젝트들과 더불어 나머지 파트너도시들로부터 결과와 경험들의 적용가능성이 검토되면서 개별 도시의 운영효율화로 유도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적극 추진되는 조례는 시외에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저장기지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택배서비스분야에서 재래교통을 통한 배달, 차량위치감지와 노선계획 등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도시간 물류 프로젝트분야는 특히 도시 트리어와 중간중심지들 사이에 경험교환과 이에 대한 검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면에서는 교통의 적정화를 통한 산업, 도·소매업, 다른 측면에서는 물류교통의 감소를 통하여 공공유익을 도출하였다.

트리어 프로젝트는 기획의 재정화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용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공공-민간 협동작업으로 추진하였는데, 파트너도시들은 트리어에 있었던 시험기간의 성공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다른 도시들의 개별 수요에 맞추도록 기획하였다.

(6) 화물교통센터 트리어

화물교통센터(GVZ)를 가지고 있는 트리어에서 화물교통은 지역간뿐만 아니라 지역내에서도 새로이 조직되어졌는데, 기업과 주민의 공급경영과 관련한 적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트리어 화물교통센터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기존의 기반시설이 확장되었거나 신설되었다. 철로와 가로, 수로 사이에 화물적재시설들의 조합이 대표적 예인데, 우체국의 지역적인 우편센터 시설과 같은 세관의 위치와 화물경로가 주요점이다.

위에서 언급된 공공의 투자외에 민간기업이 GVZ계획의 기반위에 투자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투자는 합당한 직·간접 수요와 소득효과로 연결되게 되는데, 종합적으로 GVZ의 영역과 도시네트워크 'Quadriga'에서 입지와 경영,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주 강화되었다.

트리어GVZ는 기존의 도로와 철도 연결을 거쳐 중간센터들을 잇는 산업과 공장입지들과 연계되어 있음. 여기에 정주하는 기관과 기업들은 트리어GVZ의 공급시설을 그들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데, 따라서 경영부문에 있어 투자비용을 줄이고 뚜렷한 비용효과를 가능하게 함

파트너도시들, 비트부엔, 뷔트리히, 헤어메스카일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은 그들의 주요한 광역지역내 산업지역과 도로와 철도를 통하여 화물교통센터로 연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GVZ는 조합된 교통의 전략내에서 근·장거리 교통사이에 혹은 도시내와 도시간 물류사이에 중간입지를 형성하였다. 이것을 위해서 ExWoSt프로젝트 도시네트워크는 적합한 공공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분야에서 총 12 조례들이 내용으로 구성되고 실행되었다. 여기에 정치적 영역에서 이러한 조례들 중 6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Quadriga'도시들 사이에 기존의 철도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요한 산업지역 혹은 개별 상업시설지와 연결되게 하였다. 철도위주의 GVZ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구체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Quadriga'내에 우선 기본적인 노선을 정하는 것이었고 조례들은 민간의 철도회사와 협동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면서 자금화될 수 있었다.

비트부엔 시에서 당시의 미국 항공기지의 활용으로 분명히 트리어GVZ가 (화물)항공교통과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트리어GVZ를 거쳐 철도와 관련된 다른 파트너도시들의 산업과 기업이 비트부엔 화물항공과 연계되는 것이다.

'Quadriga'내에서 뷔트리히 도시는 가장 많은 산업시설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트리어GVZ와 도로와 철도를 통한 연결로 기존에 그리고 계획된 산업지역의 입지효율을 개선시키는 것을 지향하면서 기반시설들을 보다 높게 적정화하여 이용하게 되었다.

헤어메스카일 도시의 그라펜발트(Grafenwald) 산업지역에서는 수출지향의 기업들이 입지하여 있었는데, 직접적인 철도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도로를 통하여 트리어GVZ와 산업지역과의 연계를 지속적인 적정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Quadriga'도시들에서 기업과 운영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강한 수출지향적인데, 이것과 관련하여 특히 트리어-함부르크, 트리어-베를린 그리고 트리어-뮌헨 관계는 중요시 되어있었다. 이

러한 이유로 지역의 개별 기업들이 북독일에서 수요자접근의 개선을 위해서 이미 지사센터를 세우고 있었다. 북독와 남독에 미리 있는 지센터뿐만 아니라 'Quadriga'의 기업들이 그러한 시설의 공동운영을 위하여 함께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협동을 통하여 운영비용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관계위에 화물교통의 공동운영은 트리어GVZ를 통해서 조직·운영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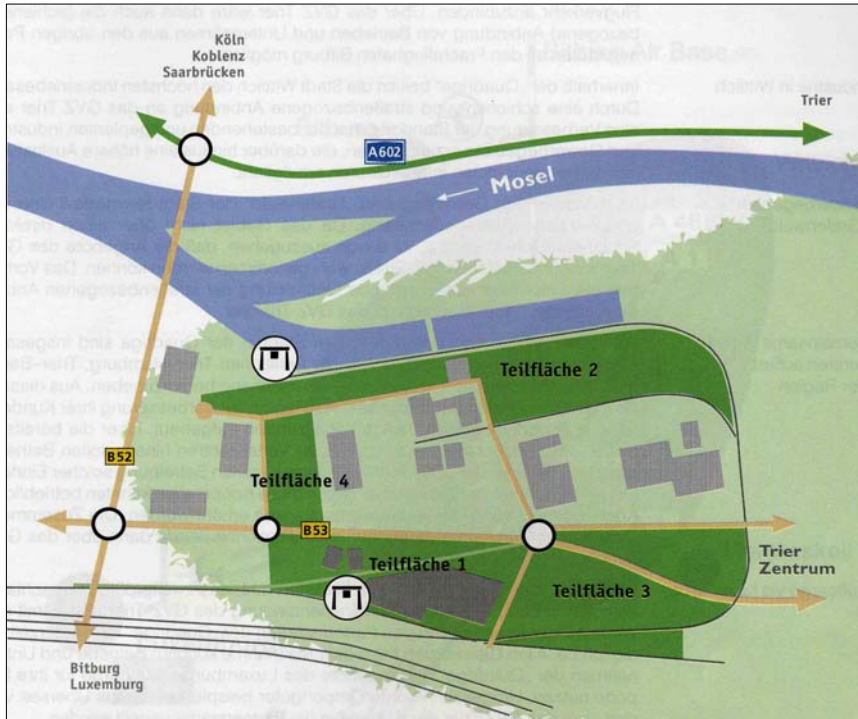
룩셈부르크 시는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화물수송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트리어GVZ와 더불어 'Quadriga' 파트너도시들에서의 기업들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은 철도노선에 대한 보완조치로 룩셈부르크의 공급시설을 그들의 수출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수출입화물이 대양으로부터 트리어GVZ 거쳐 기차로 파트너도시들로 분산되었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완조치외에 중기적인 개별 기획은 다음과 같다.

- 트리어GVZ에서 계획된 KLV시설 이용의 적정화
- 트리어GVZ에 있는 'Quadriga'의 기업운영을 위한 냉동저장센터의 설립
- 트리어GVZ에 사업지역 메어릭I의 도로와 철도를 통한 연계
- 'Quadriga'내 "도시들간의 화물교통" 조직구조의 설립

트리어에 있는 GVZ는 물류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GVZ의 관문영역에 있는 'Quadriga' 파트너도시들에 수출지향의 기업들이 입지하여 있다. 기존도로와 철도로 GVZ와 연결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공동으로 임대하고 경제적인 잇점들(교통비용과 시간의 개선)을 이루어 나갔다. GVZ에 있는 경영단체들 혹은 거기에 설치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높은 경제적 유익으로 유도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4-4〉 트리어의 화물교통센터(GVZ)



(7) 도시네트워크조직

파트너도시들 측면에서 지역간 통합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도시들의 협동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다. 통합관리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와 지점이 세워지고, 조직구조를 통해 'Quadriga' 도시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파트너도시들에서 모델기획 시기에 조직구조로 완전히 통제될 수는 없기에 장려차원에서 회사운영의 임무를 지점에 위임하는 제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여 프로젝트들이 적용되어가면서 추진력이 있는 조직구조로 발전되어졌다.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들은

- 기초적인 결정과정은 정책적으로 법제화되고
- 프로젝트 관련 민간시설들 또는 경영단체는 통합되어질 필요가 있다.

'Quadriga'의 조직형태는 도시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을 적용하는 공동의 장으로서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프로젝트운영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연계합의가 필요하였다.

4) 도시네트워크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도시네트워크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협동이 기본전제조건인데, 이러한 협동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 공공-공공 파트너십 : 공공관리 또는 제도적 협동으로 기본적인 틀이 형성
- 공공-민간 파트너십 : 민간 파트너들에 우선 자금과 프로젝트경영을 위임

공공-민간 협동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서 시기적인 면이 고려되는데, 프로젝트지향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시작과 종료가 있다. 모든 파트너들이 전략적인 파트너십/동맹을 통해서 협의하에 다목적이용을 이룰 수 있음. 이것 역시 도시네트워크에서 공공의 제도적 협동에 해당된다. 'Quadriga' 프로젝트분야는 다양한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정신신체의학'과 '화물교통센터' 같은 몇몇 프로젝트분야에서 이미 처음부터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구상되어지는 한편, 다른 기획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민간업체의 계속되는 참여와 연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잠재력이 기획과 연계되는 것이 우선적인데, 프로젝트들이 실행되면서 우선 서비스부문에 정착이 되는 것은 도시네트워킹내에 파트너들에 대한 가장 높은 발전과 성장기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프로젝트 지향의 파트너십으로서 공공-민간 협동은 여기에 시간과 전략과 시너지와 경쟁 등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 시간관계: 특정 협의체에 대한 반응이 단계적으로 나타남
- 전략관계: 파트너의 전략은 상호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공생관계: 업무분담의 의미에서 공동출자 혹은 잠재력 보완을 통한 연계효과
- 경쟁관계: 시장우위적인 형태는 분명히 후원

공공 관계자는 공공-민간 협동의 초기 발단자로서 역할을 한다. 도시네트워크의 설립은 분명한 프로젝트의 적용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의 기획에 민간의 자본과 경영 부문의 부담을 높여서 연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문화와 관광지향의 프로젝트분야에서 개별 기획이 초기에는 공공-공공 파트너십으로 구상되었다 할지라도 중기와 장기에 있어서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가 성공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

공공-민간의 협동은 지역적 관리에서 구조적인 기획을 수행하는 가능성과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이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사이에 업무분담과 경쟁이 분명하게 명시되었을 때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모델기획 시작전에 공동의 지역간 통합에서 형성되고 도시네트워크의 세부적인 조직구조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공공-민간 협동은 초기 공공의 높은 재정분담비율로 뿌리를 내리는데, 여기서 지자체는 민간당사자에 대해 권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제도적 통제를 유지하는데 용이하다.

3. 프릭니츠 (Prignitz) 지방중소도시의 네트워크

1) 협의체

도시 네트워크 프릭니츠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에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는 일곱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도시들은 비텐베르케(Wittenberge), 퍼레베르크(Perleberg), 프리츠워크(Pritzwalk), 비트스톡(Wittstock), 퀴리츠(Kyritz)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는 두 도시 바트빌스네크(Bad Wilsnack), 렌첸(Lenzen) 등이다.

이 도시들 가운데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프릭니츠가 중요한 주거중심지이고 전형적인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거주공간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 근거하여 프릭니츠 도시 네트워크는 특정 중심지가 없는 도시네트워크의 범주에 포함된다.

도시네트워크 작업은 우선 브란덴부르크 지역 두 행정부 즉, 도시개발과 주거/교통(MSWV) 행정부와 환경/자연보호/공간개발 행정부(MUNR)에서 시작하였다. 1997년 8월 7명의 시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출범되고 이해 12월 ExWoSt장려정책에 따라 계속 시행되어지면서 지방 재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졌다. 도시네트워크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하나의 도시연합체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계속 추진되어진 조직적 개발과 실행개발 부문에서의 크고 작은 진전과 전략들이 결정되었다.

2) 설립과 추진위원회

도시 네트워크 프릭니츠의 관련 위원네트워크는 직접적인 협의위원 외에 부속시스템을 가

진 참여 지역들 그리고 사회적인 기구들, 단체들과 그밖에 의사결정자들과 같은 상위의 전문 기관들이 관련되어있다.

다양한 담당부서를 가진 조직구조가 초창기부터 형성되어 거의 변화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시네트워크 상위 의사결정협의회는 시장단과 약 3개월 임기의 위원으로 구성
- 도시 네트워크 프리니츠의 중심 지원담당은 의제와 전략의 결정을 위한 준비작업과 진행 등과 같이 프로젝트 선택과 프로젝트 설계의 과정 그리고 재정, 경비분담 등을 맡음
- 구체적인 일의 내용들은 프로젝트와 의제와 관련된 작업단에서 세가지 부문 경제, 도심 그리고 정보와 추진시스템/관광임

이러한 협의체는 초창기에서 연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부관리 위원회에 의해 지원되었다. 이러한 역할들은 점점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상위 기관, 특히 도행정부는 여기에 관여하였다. 규칙적인 접촉, 보너스시스템 혹은 전문프로그램들의 묶음을 통해 도시시스템정책 측면에서 도시네트워크의 설립과 실행을 위한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조직운영적-기술적 협의경비를 가능한 적게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기 위해 실행조직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네트워크내에서 마찰없이 효과적인 작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네트워크에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절차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여자들 사이에 특성에 따른 분담의 조정규정이 초기에 세워질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직과 과제비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재정적인 기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주민수에 근거한 배분 비율을 비롯한 참여 분담비율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졌다.

도시네트워크의 수행능력에 대한 전제조건은 확실한 재정확보이다. (진행 프로젝트를 위해서 1997 회계연도에 약 총 88,000DM이 소요). 초기부터 장려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자기자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은 과제들은 단기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관리자와 정치적 결정위원에서 의제되어 처리된 것이다.

협의과정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특별 추진위원회가 없어진다. 협동작업의 정착과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역시 조직위원과 결정구조들이 보다 강하게 형성화되고 서로 연계되어졌다. 일곱 도시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합의를 이룬 후에도 또한 적용단계로의 진입과 이와 연계된 재정적 법적인 결론도출을 위해 긴 논의과정이 필요했다. 여기에 협의단체(Verein)의 설립도 보다 강도있게 논의되었다.

3) 활동과 프로젝트들

일곱 도시들은 초기 공통적 주제를 설정하였는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프릭니츠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제들이 정리되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가능한 빠른 가시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주제설정은 도시 네트워크에 중요한 과정이었다.

관광정보와 유도시스템은 우선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시작하였다.

- 역사적인 건물의 통일된 표지간판
- 프릭니츠 도시들에 대한 여행책자
- 인터넷을 통한 상세한 관광정보 제공

관광기반시설 구조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는

- 지역적인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건설
- 세 도시에서의 중요한 문화시설과 휴양시설의 전환사용, 재건축 그리고 현대화인데 이것은 공통적인 우선순위 사항으로 장려됨

다른 작업의 중요한 점은 도심에서의 주거와, 상업, 서비스 그리고 공급시설의 강화인데 다음 항목을 통해서 추진되었다.

- 개척프로젝트 ‘도심주거’ : 도심주거의 중요한 측면을 나타냄
- 소책자 ‘프릭니츠의 도시중심’ :- 도심의 질을 공공의식차원으로 환기시킴
- 대표적인 민간방식 기준의 부여

지속적인 도시개발의 측면이 강화되는데, 지역 원료순환과 같은 경제순환이 주제화되고 초기프로젝트들이 준비되었다. 공동적인 사업의 부문에서 도심에서의 음식과 숙박업과 같은 상업과 산업에 관한 일에 집중되었다.

경제개발로 기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자료와 관리정보의 교환
- 공통적인 자료 풀(pool)의 마련
- 산업공단에 대한 공동적인 발표
- 인터넷을 통한 지역 정보시스템의 구축

1996년말 시작된 공동의 영업은 도시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활성화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속에서 임무와 과제범위가 보충되어지면서 시·군이나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4) 작용과 결과들

공공적인 부분의 참여는 개별 파트너들의 ‘자기자본사용’(Eigennutzen)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시네트워크로부터 이루어지는 작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될 수 없거나 정량화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참여자들의 기대와 평가시스템은 다양하다.

공동작업 초기 우선 파트너들간의 신뢰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공감대의 발전과 지역 의식의 강화는 당사자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지역적 특성에서 계획과 실행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입지를 강화하게 하였다. 개별 도시들과 전체공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인식과 의견수렴이 공공의 활동과 민간의 네트워크에 기여하였다.

정보와 경험의 교환은 우선 직접 참여자들에게 유익하고 또한 결과적으로 주지할 만한 시너지효과들이 비용에서와 더불어 효율적인 계획에서 나타났다. 무엇보다 경비절감(예로서 다량할인, 이웃도시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 획득 등)은 협동의 결과이다. 부가적인 수단의 획득 외에 무엇보다 개별 도시들의 장려자금(도시개발촉진자금)의 축적을 통하여 프로젝트들이 실현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개발 혹은 현대의 정보와 의사소통기술의 적용가능성과 같이 도시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계속 의제화할 수 있고 이것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광역적인 협동의 차원에서, 개별 파트너들의 특정 능력들을 활용하고 한정적인 자원내에서 지역적인 우선순위들을(예를 들어서 관광시설 구조 혹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건설 등)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종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었다.

4. 도시네트워크 엑스포지역

도시네트워크 엑스포지역에는 첼레(Celle), 하멜른(Hameln), 하노버(Hannover), 힐데스하임(Hildesheim), 니엔부르크(Nienburg) 그리고 파이네(Peine)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네트워크 엑스포지역은 실행성이 높고, 상부관리층 내에서의 공동작업에 목표를 두었는데, 도시들은 이러한 공동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기회를 기대하였다.

-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총체적으로 지도력 향상과 이러한 지도력으로 대외적인 정체성을 경제화할 수 있는 기회

- 시·군의 효율성 향상과 자원절약에 대한 요구증가에 목표를 두는 기회

하노버의 2000Expo 국제박람회 그 자체가 공동작업의 목표는 아니지만 협동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였다. 도시네트워크에서 다음 내용들이 해당되었다.

- Expo2000의 지역을 위한 모든 기회들을 활용하고 위험요소들을 통제

- 엑스포 계획과 투자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추진력을 주도록 유도

- 모범사례지역으로서 지역을 나타내기위해 엑스포로 향하는 세계의 주목을 이용

도시네트워크에서 상부지도층과 같이 모든 참여 도시들에서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지도위원회가 공동작업을 위해 분명한 정책적인 근거기반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에는 지도층이 공동적인 임무수행부문에서 공동작업을 조직·관리하였다. 네 개의 지역상호간 작업그룹이 하는 일로서 다음과 같다.

- ‘경제촉진과 지역경영’의 수행분야에서 소관능력과 잠재력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고 국내·외적으로 나타내는 것

- ‘교통’의 분야에서 광역지역의 교통연합과 교통연계 그리고 엑스포 교통관리와 교통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도시네트워크의 파트너들을 기후협약지역으로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연합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운영·관리하는 것

-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엑스포 지역의 문화공급시설들을 공동으로 홍보·제공하고 보완하는 것

지금까지 ExWoSt 연구부문에서 시도하고 성과가 입증된 공동작업에서 어느 시기에 집약적인 정보와 경험교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통해 도시들간 신뢰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엑스포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이어서 수행분야를 활성화하는 공동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다. 도시네트워크가 미래전망을 밝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엑스포지역의 도시들이 미래유망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5. 시사점

독일의 사례를 검토 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첫째, 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관·민 협력으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높였다. 국가, 자치단체, 민간단체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기본적 틀을 갖춘 후, 민간단체의 기획 및 실천 역량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 상인, 주민, 민간의 힘을 최대한 끌어 들였다.

둘째, 지역협력발전사업 조직체계로서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 지방기업, 학술분야 등이 지역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하였다. 여기서 다시 총체적인 거버넌스, 즉 지자체, 중앙정부 부처, 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우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정책협의회 구성하였고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조직으로서 광역발전기획단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싣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초기부터 법제화를 시도하여 구축하였다.

넷째, 미래성장전망과 관련하여 분야선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였는데, 우선 서비스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이중 단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이는 빠른 성과가 도시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재차 동기를 유발하여 추진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건강과 웰빙분야, 신체와 정신상담 등의 융합적인 부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관광과 결합하여 코스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켰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존의 교통과 물류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거나(외국의 기반시설까지 활용)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쿼바드리가 도시네트워크)

여섯째, 현대의 의사소통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개별 도시들과 전체 공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효과적인 계획과 비용절감 같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켰다.(프릭니츠 도시네트워크)

일곱째, 국내외 큰 행사를 협동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외부의 이목이 집중될 때 대외적으로 홍보력을 집중함으로써 지역 경제력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엑스포 지역 예)

여덟째, 중심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상인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홉째,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지원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소프트웨어지원은 당사자인 상인, 의식과 의욕, 참여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제5장 주변도시 활성화 방안

1. 주변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1) 충남도 도시들의 특성

(1) 충남도 도시들의 성격 및 특성화 방향³⁾

충청남도 도시들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대전·천안과 같은 대도시들이 경부축이 관통하는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주·논산 등의 서부지역의 도시들은 규모가 작다. 또한, 아산·예산·홍성 등의 도시들은 장항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아산은 수도권으로부터 분산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구와 산업을 부분적으로 유치하기에 최적의 위치이다. 이미 옆에 있는 천안은 현재 충청권 북부지역의 산업, 교육중심지로서 수도권과 대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권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되도록 한다. 기존의 주력산업인 금속기계업종 이외에도 충남도 주력 산업인 영상, 반도체, 정보통신업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첨단화·다원화시켜야 한다.

공주시는 교육·문화산업, 관광·레저산업,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전원형 주택산업 등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을 활용한 수상 레저 산업을 개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광역시민의 레저 공간으로 서비스 할 수도 있다.

연기군은 물류산업, 중부내륙화물기지, 신기술·첨단벤처산업, 오락·유흥 산업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논산시는 국방, 레저, 녹색관광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금산군은 국제인삼물류센터 등 인삼약초 관련 산업 및 청정농업, 산촌·전원형 주거, 산악형 관광 산업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3) 정환영(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공주대학교, p.88

(2) 충남도 중심지체계⁴⁾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충남의 중심지 체계는 대전을 중심으로 공주, 천안, 서산, 태안이 소규모 중심지를 이루는 형태를 나타낸다. 중심성 기능으로는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음식숙박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소매업의 분포는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대전, 천안 그리고 장항선을 따르는 중소도시들인 아산, 홍성, 보령, 서산 등과 충남 서부 소도시 순서로 나타난다.

금융보험업 역시 도소매업 분포와 유사한 분포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충남 서부에서는 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갖는다. 음식숙박업 역시 비슷한 분포패턴을 보이는데, 대전, 천안, 서산, 아산, 보령 등이 높은 비중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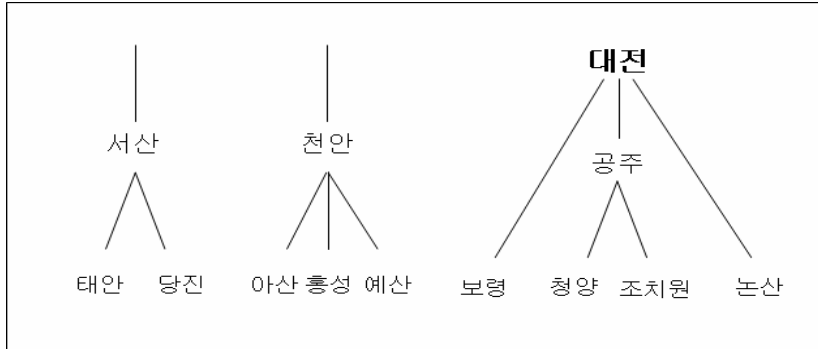
총 버스유입량을 기준으로 대체적인 중심성 측면에서는, 대전, 천안, 공주, 논산 순의 시외버스 유입량을 보인다. 즉 대전이 최대의 결절점이고 천안, 공주 등이 다음 결절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도로 도시화된 대전으로의 집중도가 높고, 서산등과 같이 충청지역 핵심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점들의 여객 유동 결절성이 낮다.

도시간 연결도에서 대전의 중심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천안, 공주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기타 중심성이 높은 지역으로서는 서산, 태안, 당진, 논산이다. 이렇게 하여 1차 중심지(대전), 2차 중심지(천안, 공주), 3차 중심지(논산, 서산, 홍성), 4차 중심지(당진, 부여)로 중심지(도시) 체계의 계층 구분을 할 수 있다.

시외버스 유동의 제1 연결도를 중심으로 추정된 도시체계는 대전에는 공주, 보령, 논산이 그 하위 중심지로 연결되고 있다. 공주에는 청양과 조치원이 연결된다. 서산과 천안은 제1연결도가 대전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서산과 천안이 수도권 지역과 1차적으로 연결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산에는 태안과 당진이, 천안에는 아산, 홍성 및 예산이 각각 연결되고 있다. 결국, 충청권이 생활권은 전반적으로 대전생활권에 속하지만, 충남 서부의 서산, 태안 및 당진 지역과 천안은 대전생활권에서 벗어나 수도권에 오히려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최원희·조봉운(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청권 지역구조 변화와 발전전략, p.46

〈그림 5-1〉 충남권의 중심지 체계



자료: 주경식, 2003, 일부수정

대전은 광역도시기능, 서천은 정체된 전통적 소도시, 아산은 제조업 중소도시, 나머지 도시군은 무특징으로 각각 특성이 분류된다.

2) 거점네트워크 구축

중심성, 규모의존성, 종주성, 종속성 경향, 수직적 접근성, 일방적 흐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심지 도시체계’의 이론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결절성, 규모중립성, 유연성과 보완성 경향, 수평적 접근성, 쌍방적 흐름 등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심도시간 기능 및 시설분담, 소도시와 군지역의 인구감소와 기능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전략을 마련한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도시네트워크이론(City Network Theory)을 적용하여 도시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재길·이왕건,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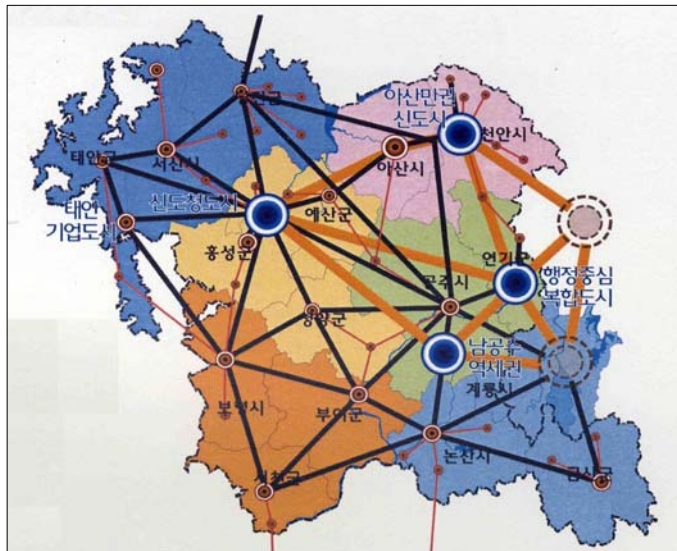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시장규모가 크고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에너지의 낭비적 사용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직접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규모 도시는 환경적 악영향이 낮고, 이동성이 높으며, 주민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규모와 인적 자원공급의 한계로 고차적 기능을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중규모 도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중규모 도시의 규모와 중심성 취약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사 규모 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대도시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⁵⁾

충청권 도시들의 도시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우선 중심도시간 기능 전문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 중심도시들의 산업별 특성과 미래의 전략산업을 감안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지역의 전문화와 성장거점도시와의 네트워킹은 자연·인문적 조건과 지역 특화 전략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과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은 2004년 21세기 충남의 전략산업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첨단전자부품,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첨단운송장비, 정밀기기), 첨단문화산업(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 농·축산바이오(첨단작물, 첨단축산, 생물), 관광산업(생태체험, 건강·휴양)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국가사업중 하나의 핵을 이루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아산배방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대전서남부권개발 후 주변지역에 대해 상당한 흡입력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천안시, 아산시, 대전광역시, 공주시, 홍성·예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도시체계 기반의 행정중심도시 광역권⁵⁾과 서해안권과 내륙권까지 '성장거점도시, 성장거점도시권, 공공기관 입지, 기업도시 등의 건설과 기존도시 특화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각각 형성된 네트워크 도시체계 기반의 광역권들'이 기능적 상호보완성의 원리에 의하여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그림 5-2〉 신도시와 주변의 네트워크



5) 정환영, 전계서, pp. 87, 88

6) 최원희·조봉운, 전계서, p.46

2. 산업적(경제적) 방안

1) 지역혁신체계

자립형 지역발전기반 구축하기 위해 우선 기업, 대학 등간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클러스터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산학협력대학 지원, 대학생의 현장실습 강화 등 기업과 대학의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등 지역내 산학연 협력의 중개기관 확충을 통해서 가능하다.

클러스터간의 연계도 강화하여 클러스터의 혁신자원을 광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클러스터 통합정보망(e-cluster) 및 연계도로망 확충과 함께 통합플랫폼 구성, 공동 R&D 및 전략산업의 IT화 지원 등과 클러스터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공동용역 수행 등 지자체간의 공동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방안⁷⁾

지역별·산업단지별 전문업종을 육성하고, 배후지역에 연관 산업 집적지 형성을 위해 입지공급과 특화기능 강화하여야 한다. 천안·아산은 자동차·반도체·전기·통신기기, 논산·금산은 정밀화학·생명공학, 연기·공주는 통신·정밀기기, 서산·태안은 석유화학·우주항공·자동차·기계, 그리고 예산·홍성·청양은 생명공학, 문화, 농·축산물 가공 등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I.C 주변에 물류기반을 갖춘 산업 집적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산시는 국제적 생산 교역도시로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연계하는 광역 물류 교통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산~천안간 연담화와 아산유통단지에서 대도시로의 물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평택(아산)항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아산과 평택과의 소모적인 갈등을 배제하고 공조를 이루어 개발해 나가는 정책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수도권의 산업기능 이전의 최적 대안지이며, 첨단지식기반제도업에 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외 광공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교육서

7) 한무호(2002), 충남의 시군별 성장잠재력 분석 및 특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pp. 92-113

비사업 종류 등이 두드러지는데, 이에 집중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인력부족해소를 위해 주문식교육, 예약입학제도, 인턴쉽제도 등 산학연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학습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대학의 학생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지식창출의 공간을 확보하여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천안과 함께 지역 혁신체제 구축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교육도시촌 조성, 과학기술관련 대학원대학을 유치 그리고 대학, 연구, 산업을 네트워크시키는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다.

공주시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 지역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으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산업입지여건이 크게 향상되었다, 교통의 결절지 주변에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는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자동차트레일러업,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제1차금속제품업, 펄프종이제품업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대덕연구단지,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지식기반 제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주시는 직물산업의 집산지인 유구읍 일대에는 고급섬유, 의복, 의료, 생활용품 가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하여 완제품생산단지로 전환이 필요가 있다.

연기군은 충북 오창,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천안 아산테크노파크와 인접해 있어 새로운 첨단 벤처산업지대로 등장하고 있고 지역내 2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산학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인력수급의 안정과 지식기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광공업, 소매업, 통신업, 금융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펄프종이제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사무기계 및 회계기계업, 기타전기기기 및 전기변환장치업, 재생용가공원료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난다.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사업의 생산기지로 성장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대학에 지역의 특화산업과 관련된 학과신설, 전문대학의 유치를 통해 인력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연기군은 산업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업의 비중을 높여 산업의 다양화를 제고하여야 한다. 대학촌을 중심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이 지역을 문화, 예술 및 교육, 서비스업의 구심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금강 수변축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지역내 또는 주변의 첨단산업벨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전문도매 및 쇼핑단지를 조성하여 주변 대도시로의 상권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홍성군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림어업이 특화산업인데, 제조업은 제1차금속제품업, 음식료품업이 특화업종으로 나타난다. 성장산업으로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농림어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대학들의 학과와 연계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벤처전용공단을 홍성IC주변에 조성 지역산업의 다양화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서 추진중인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지역산업인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전통적인 축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선진화된 농업군으로서 이미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축산기술의 개발, 체계적 관리운영으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축산시범단지를 축산사육의 체험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예산군은 농림어업, 숙박및음식점업이 특화산업으로 분류되었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섬유제품업, 고무및플라스틱,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자동차트레일러업이 특화업종이다. 성장산업으로서는 부동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책이 또한 필요하다. 예산군은 홍성군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농업테크노파크가 조성중에 있어 생태 및 벤처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선진농업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산군을 인삼의 종주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세계적 규모의 인삼거래시장으로 체계적인 유통기능을 확대하고 특화할 필요가 있다. 금산군은 농림어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업이 특화산업이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업, 재생용가공원료업이 특화업종이다. 성장산업으로서는 전기가스중공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출판인쇄기록매체업, 코크스석유핵연료업, 섬유제품업, 의복 및 모피제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등이 있다.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지역 특화산업 위주로 공단을 조성하여 전기, 전자, 식료품, 인삼, 약제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양호한 교통접근성 및 쾌적한 환경을 이용한 첨단산업단지와 산촌주택 및 청정 전원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논산시는 대전 도시권과 군장산업권의 중간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유통 상업·업무, 주거기능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논산~연무~강경읍간의 도시성장축을 고려, 기존도심에 대응하는 신도심을 배치하여 도심활동의 균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논산시는 광공업, 통

산업, 금융업이 특화산업이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업, 고무 및 플라스틱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다. 성장산업으로 통신업, 부동산업, 위생서비스업 제1차금속제품업, 조립금속제품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업종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대전·청주권과 군산·장항권 산업기지 양지역의 배후지역 기능을 수행하고, 정보, 전기, 전자, 정밀과학 등의 전문산업과 식료, 농산품 등 지역특산품의 전문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지방 주력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다. 군장권과 연계된 부품산업 및 식료품산업을 유치하고 논산지방산업단지를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조성하여 창업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 계룡 입암 벤처전용단지를 조성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전자통신기기 등 군수관련 산업 적극 유치하여 현재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태안군은 농림어업, 전기가스중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특화산업이고 제조업은 음식료품업, 목재 및 나무제품업, 비금속광물제품업, 가구 및 기타제조업이다. 제조업중에는 섬유제품업이 성장잠재력이 있으며 대부분의 제조업이 정제산업이다. 그러나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섬유제품업 성장산업이기에 이러한 업종도 장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태안군의 제조업 대부분이 음식료품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가공업을 위한 전문중소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태안군은 최근 화훼산업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화훼산업의 현대화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특화산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어류양식장과 시설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자연산업을 활성화하고 온배수를 이용한 종합해양레저센터 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1〉 광역중심지별 도시기능과 특화산업

광역중심도시	도 시 기 능	특 화 산 업
아 산	첨단산업·중추관리·연구	영상·반도체·정보통신
공 주	역사문화·관광·교육	문화관광·통신·정밀기기
논 산	생명산업·근교전원도시	식품가공·정밀화학·생명
홍 성	역사문화, 특화산업	문화·농축산가공·생명

3) 중심시가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⁸⁾

중심시가지는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구시가지로서 여기에는 대부분 주변상가와 더불어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재래시장은 그 지역의 정체성이 묻어 있으면서 서민의 ‘생활 장’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요한 핵심부문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곳이 신시가지 개발, 공공시설의 시외곽이전,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쇠퇴하면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주변 신도시가 형성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되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지자체들 중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아직 추진과 성과는 미진한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규제완화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상가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은 주변 상가와 주거지 지역과 연계하여 일체화된 계획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기본원칙과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으로 시장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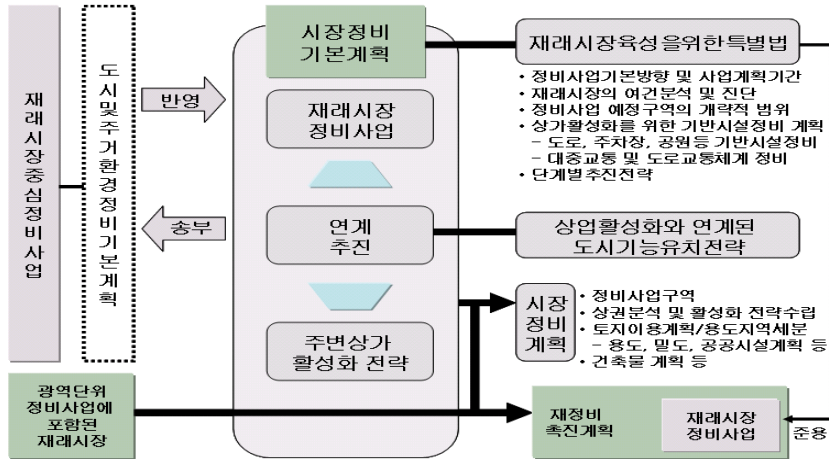
둘째,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회복 및 도시공간구조

셋째, 시장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을 통한 상권회복 및 신규상권조성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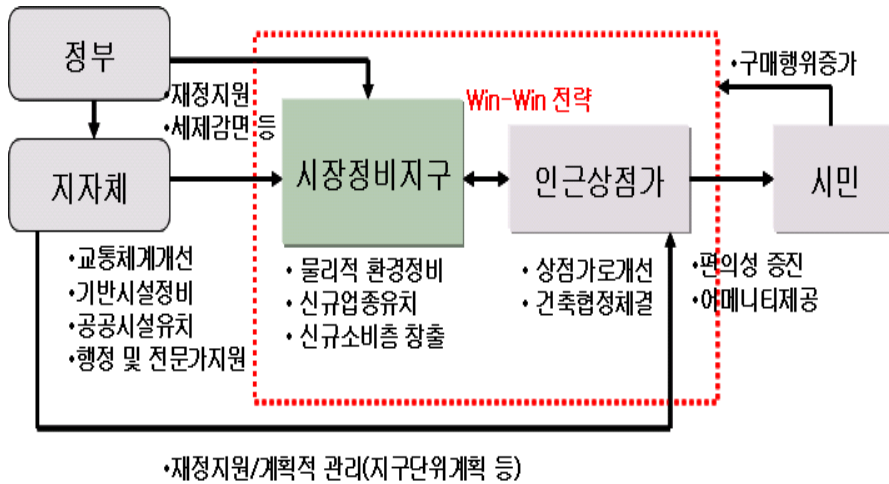
넷째, 재래시장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정비방식 선택

8) 서수정의 3인(2006), 재래시장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모델개발, HURI FOCUS 제 15호, 주택도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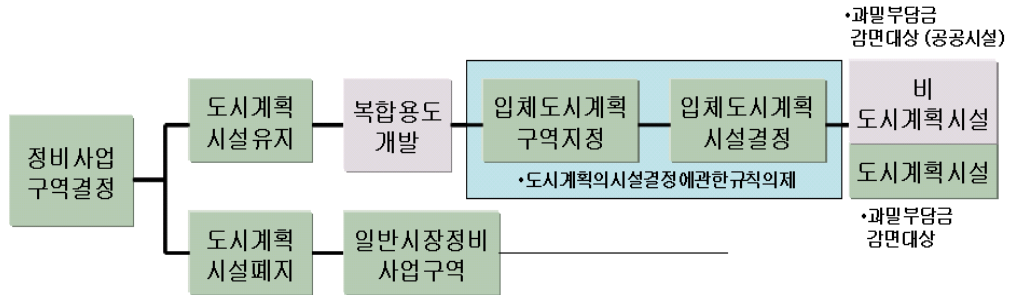
〈그림 5-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으로 시장정비사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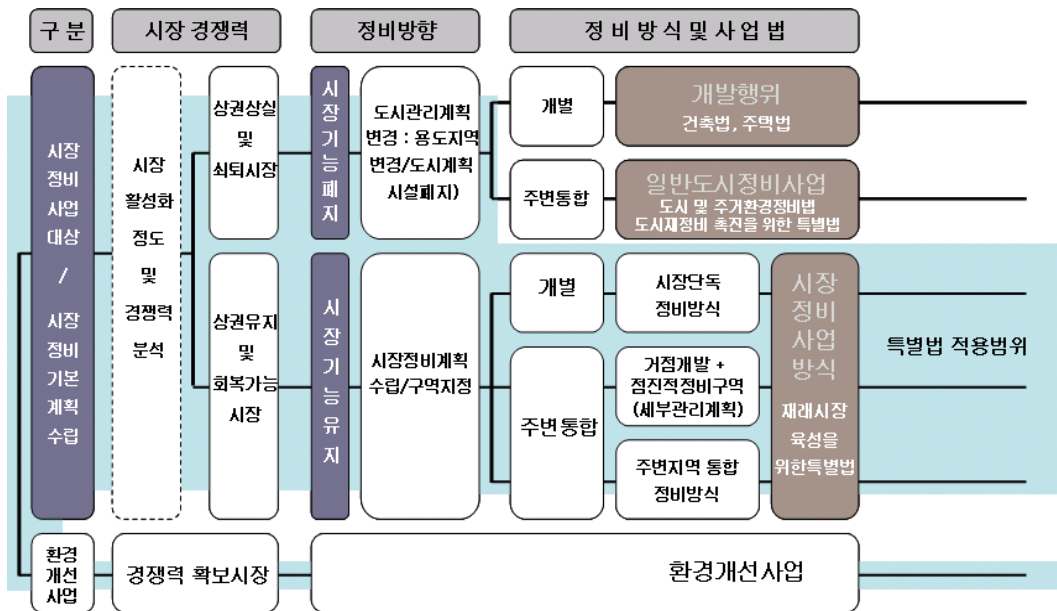
〈그림 5-4〉 시장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및 도시공간구조 회복 개념도



〈그림 5-5〉 시장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을 통한 상권회복 및 신규상권조성개편(안)



〈그림 5-6〉 재래시장 여건에 따른 다양한 정비방식 모식도



지금까지는 대형 상업시설은 시장경제에 따라 입점, 경쟁하여야 하는 상업시설로 보았지만, 대형점의 영향력, 구매패턴, 마을만들기와의 관계 등을 통해 하나의 광역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과의 품목을 비롯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의 경우 구시가지에 산성재래시장과 더불어 주변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껏 이곳 상인들이 대형할인매점의 입점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대전과 천안의 상권으로 고객이 이동하는 현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어 고급상권을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들이 입지하게 되면 더욱 매출량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공주시내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세종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하되 재래시장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생하는 형태의 대형 상업시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껏 재래시장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계획과 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관광지로서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판매지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시 혹은 민간 박물관 등을 길목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행거리의 활성화를 형성하면 관광객과 더불어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되고 보게 되니 구매하게 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진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용은 조금씩 지역적 특성의 감안은 필요하지만 공주시뿐만 아니라 아산시, 홍성·예산군, 금산군 등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어질 수 있다.

3. 관광개발 방안

지역 특성별 관광권역 설정과 특성화 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공주를 중심으로 백제·금강문화관광권을 백제역사문화자원, 금강 생태축과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지로 특화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주, 논산, 연기, 금산을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 예산 등 내포문화관광권을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 아산지역은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온천 휴양권역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표 5-2〉 관광권역 설정 및 관광특화

구 분	거 점	부거점	개발방향
백제·금강문화 관광권	공주	논산	백제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문화·역사· 생태관광
내포문화 관광권	신도청	예산 홍성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안 관광중심의 역사문화·해양관광
역사·온천휴양권	아산신도시	아산	충절의 역사문화자원과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 휴양관광
대도시 근교권	행복도시 대전서남부	연기 금산	대도시근교형 관광위락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악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휴양·도시·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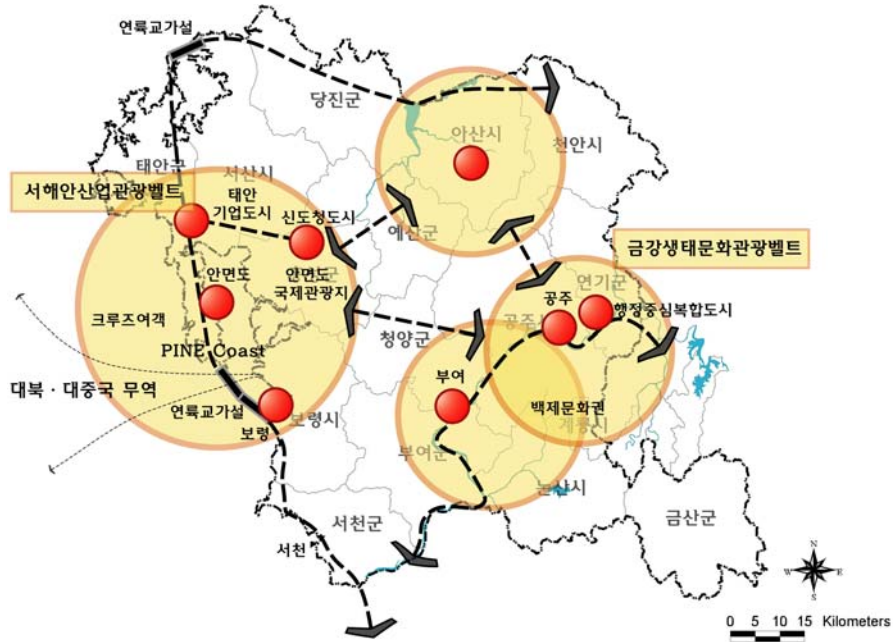
주: 관광권역은 입지 및 자원특성에 따라 중복 설정

관광거점도시의 전략적 개발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된 주변지역에는 백제호 종합개발, 고북저수지 개발, 송파수목원 조성사업, 운주산성 역사공원 조성 등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아산신도시·신도청도시내 초고층 건축물을 명품건물(지역의 랜드마크)로 건축하여 충남의 새로운 미래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산시를 중심으로 역사·온천휴양권의 중심 거점도시로서 온천자원과 웰빙·보양, 관광체험요소들을 연계한 온천테마 보양·체험 관광도시를 개발하고, 온천관광지와 시내의 숙박시설·음식점, 주변 관광지들과의 연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아산만 해양관광지구, 광덕산 산림휴양단지, 영인산 수목원, 온천·웅기전시체험관, 외암리민속마을 보존 및 관광기반 확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광거점도시 개발을 위한 관광지원시설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관광숙박시설의 분포를 보면 아산시에 11개소가 집중 분포되어 지역적 편중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기반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광거점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5-7〉 관광거점도시의 위치와 상호 관계



자료: 3차 도종합수정계획

관광벨트 및 관광루트의 형성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망 구축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의 분포특성과 테마를 연계하여 상호 네트워크형의 관광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관광패턴형의 항공·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공주를 위시한 금강주변에 조성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광마케팅의 강화와 인접 지역간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인접 시·군간 관광사업의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제규모의 메가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관광자원의 이용성과 관광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형태로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이 증대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생태관광, 자연밀착형 관광, 자연체험형 관광 등이 대안관광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관광전략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건축물 및 장소 등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건축물의 신·개축시 사적지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외장, 형태, 고도, 색채 등의 지정을 유도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콘텐츠 상품의 제공으로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관광형태가 가족단위 관광의 증가되는 것이 예상되므로 시설중심의 관광에서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추구형으로 관광형태 관광거점도시 개발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웰빙문화의 확산에 따라 건강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체험상품 개발하고 휴양과 웰빙 관광객을 위하여 온천이 집중한 도시에 온천·보양관광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제문화권 중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계하는 배후지역에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개발하여야 하는데 역사자원과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상품 개발및 판매 촉진하고 한류 대중문화를 충남의 자원과 접목한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여야 한다.

농어촌 관광마을과 재래시장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의 판매·가공·관광을 결합하여 체험관광마을로서 녹색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제공하여 도시·농촌간 교류·공생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읍·면단위 시골장터를 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주말 관광시장으로 개발하고 농어촌 관광마을을 갯벌체험민박마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철새민박마을 등과 연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산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온천자원을 산업배후도시와 연계하여 쾌적한 전원휴양도시로 육성하고 환락도시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광특구 체계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도시내 입지한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편의시설, 도시경관 등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하거나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는 국제적 문화 관광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입체적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의 결절지로서 접근성의 개선효과를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제문화권의 고도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거점관광도시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 거점관광지 역할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성있는 전통 문화예술기반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도옛모습되살리기 추진, 종합도예촌, 마곡온천관광지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 전통문화의 보전계승,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와 참여형 이벤트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금강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대도시의 근교관광농업을 활성화하여 계룡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대전광역시 인구의 휴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이나 외래관광객을

위한 숙박 및 관광지원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관광과 레저시설 그리고 숙박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연기군은 금강 수변축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주변 대도시민들의 휴양지로 조성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전문 도매 및 쇼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산업에 촉매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성군은 내포문화의 복원 홍보를 강화하여 홍주성, 조양문, 구백의총, 총령사 등 역사 문화 유적과 용봉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성군 문당리 환경농업시범단지과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지역의 녹색관광화를 통해 도농간의 교류증대, 농어촌의 이해의 증대, 자연과 농사의 체험, 여가공간 확보의 장으로 발전시켜 농어촌관광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궁리, 어사, 남당지구 3개의 관광지구를 각 지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궁리지구는 통과여행객을 위한 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어사지구는 정적 장기체류형 휴양관광지로, 남당지구는 남당항 개발과 연계시켜 요트장과 같은 도적 장기체류형 관광지로 특성화하고 기존의 대하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더욱 활성화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덕산도립공원 등의 활성화를 위해 연계코스를 개발하고 각종 과수원과 원예단지를 체험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덕산을 중심으로 온천과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기업체 연수 중심의 컨벤션산업 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금산군은 인삼의 중주도시로 인삼관광특구의 지정을 추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양·휴양 관광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둔산, 서대산 등의 명산을 활용한 산악경관감상, 생태체험 및 산악이벤트 개최, 도시내의 다양한 테마공원조성, 금산인삼축제의 세계화 등 문화 관광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논산시는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지역내에 소재한 각종 서원, 유교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안동과 대등한 유교문화권 형성을 할 수 있다. 최근 개교한 불교재단의 대학인 금강대학에 한문학과 유교학을 개설하여 불교와 유교문화의 메카로 지역특화 유도할 수 있고 연사면 고정리 주변에 예학촌과 탑정호 주변에 농업생태공원을 조성 연계·개발할 필요가 있다. 강경읍은 근대문화의 유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근대문화 유적을 복원하여 영화촬영장소로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고 강경은 젓갈문화관광지구로도 조성할 수 있다.

태안군은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보고로 해양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며, 태안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바다, 해변, 낙조 등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친화형 해양휴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학암포, 천리포 및 신두리 등의 전문적 관광단지와 지역내 산재한 농어촌 및 생태관광자원을 연계 복합화함으로써 4계절 관광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국 등 주변국가의 외래관광의 증가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해상교통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크루즈 관광을 통한 해양관광산업의 국제화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천~아산만~장군지구~다도해를 연결하는 크루즈 관광루트 개발이 필요하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의 지속적 개최와 해양종합리조트 조성 등을 통해 특화된 관광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연계교통망 확충 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남공주역, 아산배방신도시-아산을 연결하는 경전철과 행복중심복합도시·대전서남부와 주변도시인 금산, 공주, 계룡, 조치원 간의 경전철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철화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전철을 신도청지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볼 수 있다.

지역문화·관광을 지원하는 연계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 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 서해안권·내륙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결된 도로를 정비하여야 한다. 관광객은 개인교통수단을 80%, 대중교통수단을 20%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도망 확충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시동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해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내의 시내버스시스템을 관광투어형으로 개선하여 관광지들을 연결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농어촌지역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교통수요를 원활히 수용하고, 배차시간·노선을 유연화한 버스운송시스템을 도입하며, 다양한 보조교통수단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생산지에서 신도시로의 화물유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시스템 개선과 이를 지원하는 교통망 확충이 요구된다.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도 616호와 645호선을 확장하거나 두 지방도사이를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사통팔달의 입체적 광역교통체계는 우수하지만 공주시내의 교통망은 좋지 못함. 특히 재래시장을 비롯한 구시가지의 교통상황은 혼잡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아 지역경제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침. 협소한 시가지내도로의 정비와 주차장의 확충이 절실하다.

논산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지선 그리고 금산군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각각 접하여 있어 남북방향 혹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은 양호하다. 그러나 논산시와 금산군 두 지역간의 교통체계로는 단지 지방도 66호가 상당한 굴곡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 연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지방도 66호선을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굴곡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속화도로를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산시와 금산군의 시가지내 교통상황이 양호하지 않아 내부도로망의 정비와 주차장 신설이 우선 필요하다.

5. 제도적 방안⁹⁾

1) 행정적 체계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행정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여러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해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 지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각 부처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함께 각 지자체를 여러 사업으로 아우르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지역협력발전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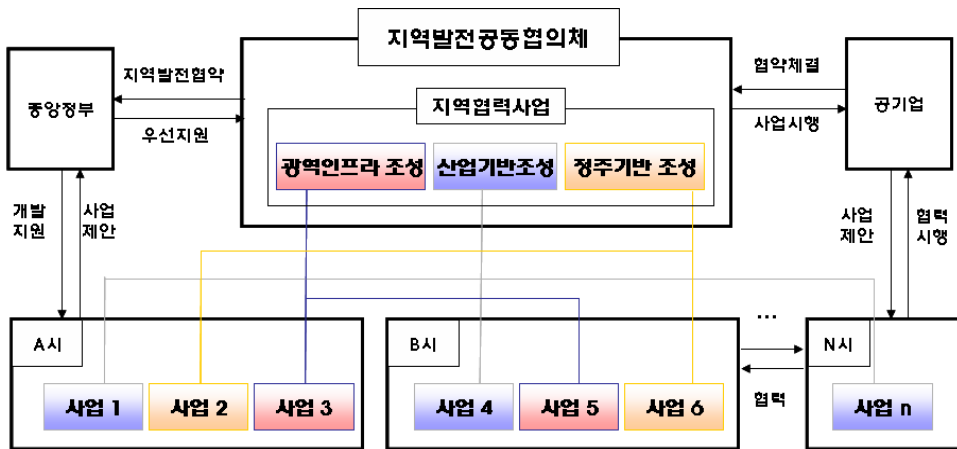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단·중기적 측면에서 기존 지역개발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광역권개발계획의 실행성을 제고하고 특정지역개발계획의 종합성을 제고하며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다지역간 협력모델

9) 건설교통부(2007), 지방중소도시의 현황과 발전방안

로 확장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협력발전사업의 모델을 구체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기존 지역개발사업 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역협력발전사업 모델을 독자적 사업모델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협력발전사업의 모델개발과 더불어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지역협력발전사업 체계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발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면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고 광역인프라조성, 산업기반조성, 정주기반조성 사업 등 포괄적인 사업분야와 연계를 이루어 한다.

〈그림 5-9〉 지역협력발전사업 체계



자료: 건교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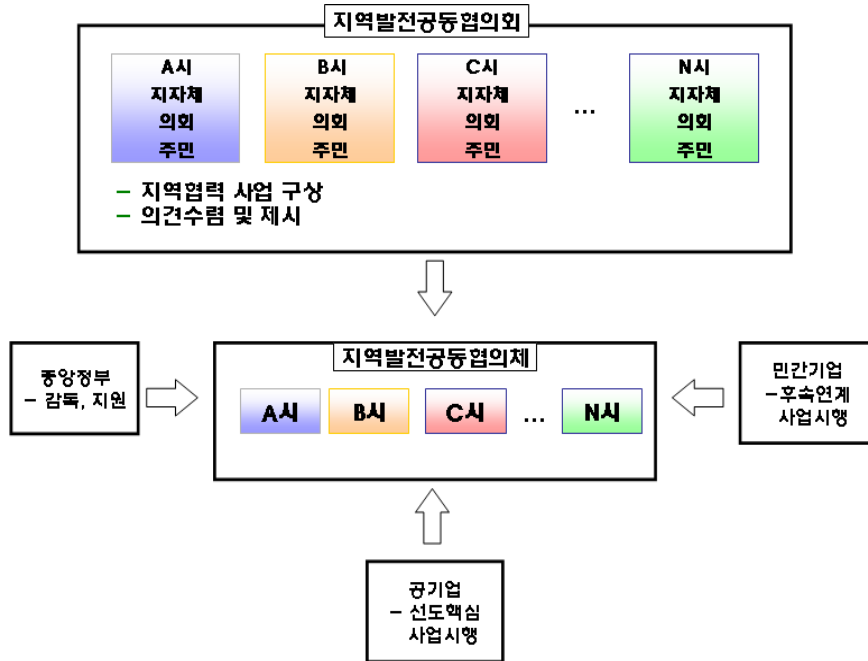
지역협력발전사업 모델의 사업연계방식으로서 여러 지자체를 포함하여 광역적 단위로 사업 시행하면 정부지원, 민간참여 등 선도사업 시행으로 사업여건을 개선한 다음 후속 연계사업 시행한다. 이를 위한 지역개발계획, 담당 부처 등의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역협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관련 지원제도로써 지자체간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공동사업 추진조직으로서 광역발전기획단 설치할 필요가 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정책협의회가 구성되면 지자체간의 각종 행정협력제도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지역간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협력발전사업의 조직체계로서의 지역발전 거버넌스 모형은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 지방기업, 학술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내 거버넌스와 협력 지자체간 다양한 수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역간 거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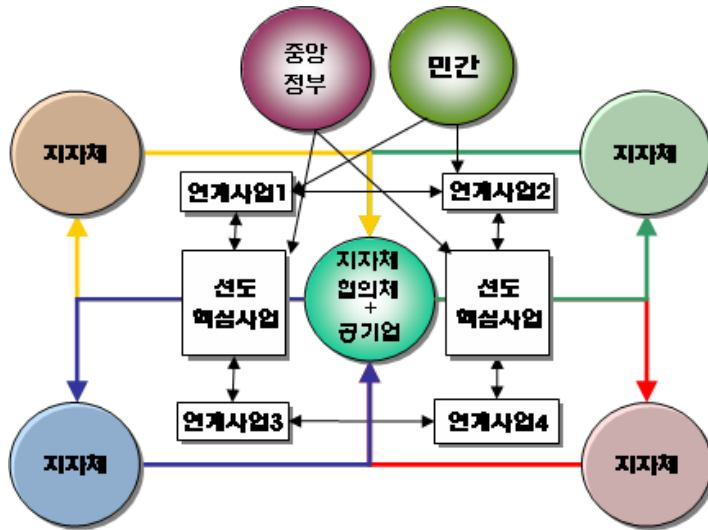
년스 그리고 지자체, 중앙정부 부처, 공기업, 민간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Macro 거버넌스 모형 등이 있다.

〈그림 5-10〉 지역간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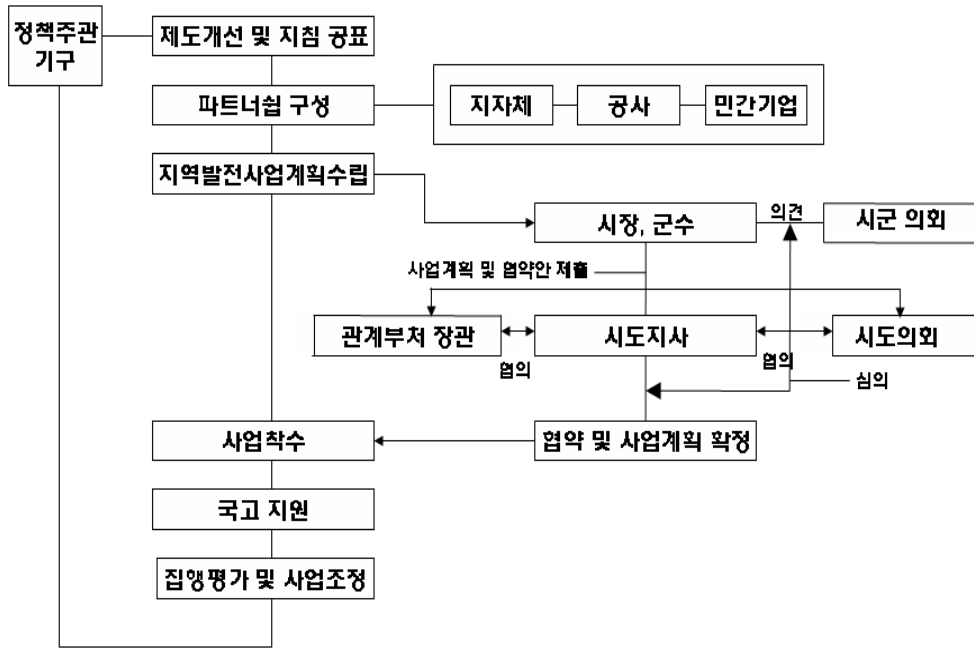
지역협력발전사업 연계체계 측면에서 여러 지자체 간 사업연계 체계 구축으로 기존 지역중 합개발사업이 한 개 지자체에 국한되어 사실상 낙후지역의 사업수익성이 없었던 점을 극복하 여야 한다. 사업 선정기준에서 수익성보다는 효과성·파급력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도 핵심사업이 단기적·독자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의 지원, 민간자원 활용체계를 결합하여야 한다.

〈그림 5-11〉 지역협력발전사업 연계체계



지역협력발전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정책주관기구가 제도개선 및 지침의 공포, 사업 집행 평가 및 사업조정을 하고 지자체, 공사,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을 구성한다. 파트너십에서 지역 협력발전사업계획의 협의 및 입안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나온 계획안을 시장군수가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안)과 협약안을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시도 지사는 이것을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및 사업계획 확정한다. 사업착수하면 사업계획 및 평가에 근거하여 국고지원이 따르고 사업과정 및 집행 결과 평가에 따라 사업조정(피드백)이 이루어진다.

〈그림 5-12〉 지역협력발전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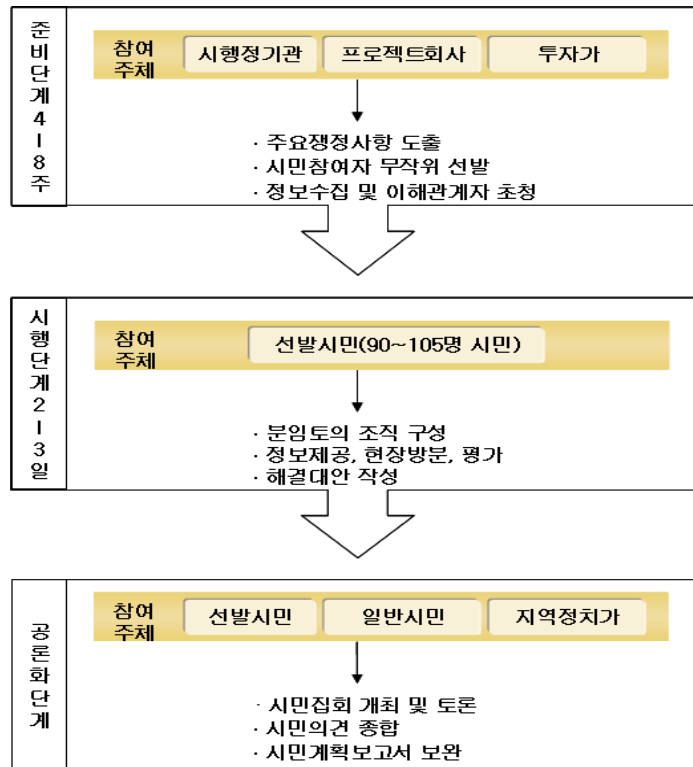
(2)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

바람직한 중소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내 거버넌스 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의 반영이 중요하다. 우선 일방적인 공람·공고·공청회 방식을 대안적 주민참여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갈등관리 법안인 ‘공공갈등의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886호)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후적인 주민참여보다 사전적인 주민참여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계획과정부터 주민참여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데, 계획초기단계부터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공청회, 청문회, 여론조사와 같은 방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고 합의회의나 주민배심원 주민패널, 주민자문위원회, 포커스 그룹, 시나리오 워크숍 등은 현재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 과장이 클 수 있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독일 줄링엔시의 주민참여 사례(이영은, 2006)를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활용된 세포계획(Planungszelle) 방식은 부퍼탈 대학의 디넬(P.C. Dienel) 교수에 의하여 고안된 참여 모델로 무작위로 선출된 25인 정도의 주민들이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림 5-13〉 계획세포방식의 운영과정



자료 : 이영은(2006)

이러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도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으로 짧은 기간동안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의 역량 강화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 시설의 개선 보다 더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 발전시킬 수 있다.

2) 재정지원적 체계

(1) 재정조달의 기본방향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민자 선호사업인 관광사업, 지역개발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자 혹은 외자 등을 유치한다. 낙후농어촌지역 정비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중앙부처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안정된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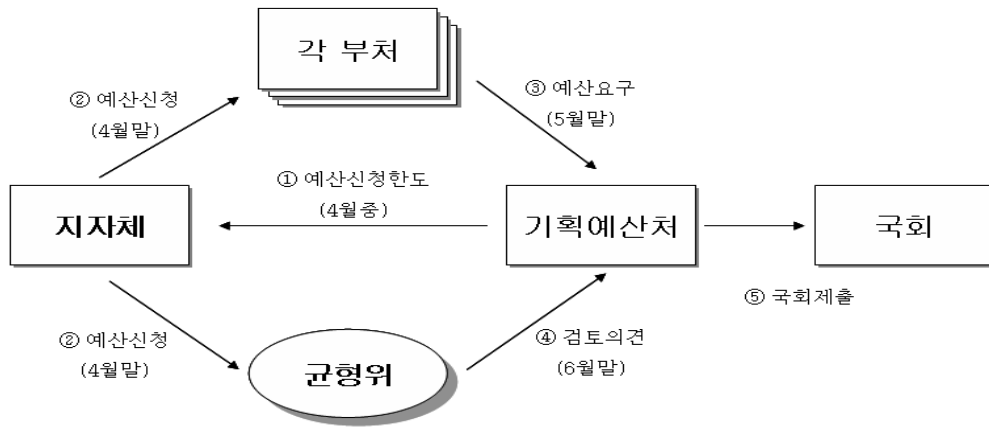
재정 지원제도로써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가 요구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협력계정 설치 및 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조정 수단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야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우대 및 지방채 발행을 우선 승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특징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에 있어 혁신주도형 발전, 다극 분산형 발전,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질적 발전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균특회계는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추진되던 균형발전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지역개발, 혁신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년)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어 예산운영상 특별회계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정부 보조금 제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균특회계는 크게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양분되는데 지역개발계정은 낙후지역개발, 농산어촌개발, 그린벨트 관련 사업 등 지역간 차별시정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계정이고 지역혁신계정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 지역혁신 및 특성화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으로 계정별 예산편성절차는 다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14〉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절차



지역개발계정은 다시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 기타사업(재해예방관련, 개발제한구역관련 사업 등)으로 세분되며 시·도지사는 4월 중에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한 공식에 따라 시·도별 신청한도 내에서 예산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자율편성사업은 시·도지사가 시·도별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종합하여 조정한다. 균형발전기반 지원사업은 해당 시·군·구의 장이 사업별 신청한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예산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조정 없이 종합하여 예산을 신청한다. 기타사업은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신청한다.

지역혁신계정은 시·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신청하면 각 부처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배분한다. 지역개발계정은 사전에 시·도별 예산신청한도를 설정하고 지역혁신계정은 중앙부처 위주의 사업추진체계를 중앙·지방의 협조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역개발계정사업(전체 예산의 약 80%, 총 5.5조원 가운데 4.2조원에 해당)과 지역혁신계정사업(전체의 약 20%, 1.3조원)의 차이는 사업의 목적, 특성, 자금운영 방식,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지역혁신계정은 효율성(efficiency)을 목표로 하는 반면 지역개발계정은 형평성(equity)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내지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두 부문 간에는 상호 보완적 기능보다 상충적 기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예산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사업의 목적, 주변상황 등에 적절한 계획과 제안신청을 하여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자체적인 재정보호 방안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2005.8 제정, 2006 시행) 충남도의 주도 아래 몇몇 지자체가 연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개별 지자체의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 지자체가 채권의 원리금을 함께 부담하므로 전체적으로 적지 않은 액수를 조달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공공부분의 예산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다양한 기반시설의 적절한 확충이 필요하다. 시설운영 기능 중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되는 분야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방안으로서 BTL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범위는 민간사업자가 계획,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개별 지자체의 사업에서 재원확보 방안으로서 도시계획세나 개발이익환수 징수금 등을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펀드'의 도입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요약 및 결론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국토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큰 기대와 더불어 기존 주변 소도시의 약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에 생활권이나 상권이 집중돼 주변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심한 불균형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권내의 소도시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지와 주변 배후지 또는 주변 배후지간의 상호연계망을 형성하므로 이들을 아우르는 광역 지역개발모형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모형은 중심도시와 더불어 주변 시·군에서 개발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주변 중소도시의 활성화와 주변 시·군의 상생·보완적 발전,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함에 목적이 있다. 즉 거점네트워크 체계를 통하여 도시와 시·군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 네트워크는 도농간·사업간·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분산되고 분절된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간의 연계’, ‘사업평가와 지원의 연계’,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네트워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와의 협력’, ‘도시간 협력사업 촉진’, ‘지역내 및 지역간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각 시·군들의 특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 도시들의 특성화 기반으로 타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연계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역인구의 정착을 지속시키며 더불어 발전하게 된다.

산업·경제적 방안내에 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체계와 광역적 관광개발체

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발전잠재력 상호간 광역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간구조적 방안으로서 연계교통체계와 더불어 광역적 지역혁신, 관광개발 및 연계교통체계를 종합하는 정주체계가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정립을 위한 뒷받침으로서 제도적 방안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지방의회, 주민 등 사이의 행정적 체계와 재정 지원적 체계에 대한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정책 제언

거점네트워크 시스템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의 특성화가 전제조건이다. 도시의 역량과 자원 등 특성화에 기반한 차별화된 창조적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프트형 개발전략 강화’, ‘산업융합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도시브랜드와 마케팅 차별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도시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의 잠재요소들 중에서 문화, 관광, 의료, 휴양 등 소프트형 혁신클러스터 개발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 건강과 관광, 문화와 관광 등 관광과 융합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시혁신역량 및 창의성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교육과 산학연 프로그램의 연계강화 등이 요구된다. 중심시가지(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성 제고와 정체성 보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형할인매장과 더불어 주변상가가 재래시장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영전략을 구상이 요구된다. 정부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사업간 협력운영방안 수립과 지역발전사업의 지원과 평가를 연계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와의 협력’, ‘도시간 협력사업 촉진’, ‘지역내 및 지역간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중소도시내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도시내 거버넌스 구성 및 지속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내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도시간 협력촉진을 위해 도시간, 지역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우선지원과 대도시권에 대응한 통합적 지역경쟁권 형성 등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사업의 실행을 위해 광역기획단을 구성하여 수행과정에서 가능성과 어려움을 분석하고 어려움에서 극복가능성과 한계점을 구분하여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간 연계의 강화를 위해 도시간 연계에 기반한 지역발전사업의 발굴 및

지원체계구축과 지역협력사업의 공모제 시행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중소도시가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와 원활한 협력과 연계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효율적 네트워크는 도농간·사업간·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분산되고 분절된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간의 연계', '사업평가와 지원의 연계',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개발사업간 연계측면에서 지역협력발전사업 방식의 개발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간 연계 및 사업간 연계방식, 사업구성, 추진절차 등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시평가지 중소도시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중소도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정책강화', '협력과 연계프로그램 지원', '도시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도시간 네트워크의 구성은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각 지역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이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주변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충청도에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신도시들의 기능적 윤곽이 드러나면 각 지역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과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역별 부분통합이 충청도 전체적인 통합으로 이어져서 충청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다 면밀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의 개발결정과 개발과정 그리고 완공후 등 단계적으로 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잠재적 혹은 실제적 이동유형과 유형에 따른 비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동유형마다 나타나는 이동원인속에는 주변지역의 개선을 통하여 공동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 중에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동화 대처방안이 가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현실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현수, 정준호(2004), “세계의 지역혁신 사례분석 - 관련이론, 성공요인 및 실패사례”, 응용경제, 제6권 제2호, pp. 27-6111. 건설교통부(2006)
- 강황선(2003),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역량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pp.201~227
- 건설교통부(2007), 지방중소도시의 현황과 발전방안
- 국토개발연구원(1996), 도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원(1988), 중소도시기능 및 체계분석: 중부권 중소도시 유형간 비교연구
- 국토연구원(2004),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 권일(2005),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
- 김광남(200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관건이다,” 도시문제, 제41권 435호, pp. 68-704.
- 김영모(1992), 지역개발학개론, 녹범사
- 김정연·김창석(2000), “충남지역 중소도시의 기능 특징 및 유형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2
- 김창현, 이순자, 이성수(2006),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7), 도시영농과 도시개발, 도시정보지,
- 소진광(2005), “지방 중소 도·농 통합시의 경쟁력 강화방안 - 신활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 73-92
- 서수정, 이창호, 정종대, 정경일(2006), 재래시장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모델개발, HURI FOCUS 제 15호, 주택도시연구원
- 이성복(1985),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성장거점도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부설행정문제연구소
- 이호영(1985), 성장거점이론의 적용한계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임석희(1995), 「공간조직의 관점에서 본 한국 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9쪽 참조
- 임준홍(2006),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 임창호(1988), 중소도시 기능 및 체계분석 : 서남권 중소도시 유형간 비교연구, 국토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도약의 씨앗』 심포지움
- 충남발전협회, 충남발전연구원(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충남지역 발전방안
- 하성규·김재익(199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의 공간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No.30-3
- 한무호(2002), 충남의 시군별 성장잠재력 분석 및 특성화 방안, 기본연구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행정자치부(200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착수」
- Erickcek, George A. and Hannah McKinney(2006), "Small Cities Blues:" Looking for Growth Factor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20, No. 3, pp. 232-258
- Hyun-Suk Min(2006), Strategies for Network Cities, Karlsruhe University
- Bundesamtes fuer Bauwesen und Raumordnung(1998), Staedtenetze: ein Forschungs- gegenstand und seine praktische Bedeutung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획연구 2007-11 · 충남 신도시 주변지역의 활성화방안

글쓴이 · 김성길 · 한상욱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7년 10월 31일 / 발행 · 2007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빌딩 5,6층 (301-745)

전화 · 042-820-1152(도시계획연구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6124-026-0 93300

<http://www.cdi.re.kr>

© 2007,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